

第234回國會  
(定期會)

#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第 5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2年10月22日(火)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2003년도예산안(계속)
  - 가. 문화관광부소관
  - 나. 문화재청소관
2. 2003년도가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문화관광부소관

## 審査된案件

1. 2003년도예산안(계속)
  - 가. 문화관광부소관 ..... 1
  - 나. 문화재청소관 ..... 17
2. 2003년도가금운용계획안(계속) ..... 1
  - 가. 문화관광부소관

(10시21분 개의)

○**委員長 裴基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국회(정기회) 제5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문화관광부 소관 5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심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3년도예산안(계속)
  - 가. 문화관광부소관
  - 나. 문화재청소관
2. 2003년도가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문화관광부소관

○**委員長 裴基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 문화관광부 소관과 문화재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가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산업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야 간

사 간에 협의한 결과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03년도예산안(계속)
  - 가. 문화관광부소관
2. 2003년도가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문화관광부소관

○**委員長 裴基善** 먼저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03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보고를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裴基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개최된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裴基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기간 중 개회식에 직접 참관하시어 보내 주신 뜨거운 성원은 대회를 치르는 데 큰 격려와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9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화예술계의 숙원이었던 정부 재정규모 대비 문화예산 1%를 처음으로 달성한 후 올해까지 3년 연속 문화예산 1%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2003년도 정부안에 역대 최대규모인 1.15%를 편성·제출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등 우리 부 소관 분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산 1%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에 우리 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정책과 부문별 예산의 편성특징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소관 부처에서 자체 편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던 기금이 올해부터 기획예산처와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그동안 관례적으로 국고와 기금에서 함께 지원되었던 사업에 대해 새로운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국고 및 기금 지원대상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체육부문은 대한체육회 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선수 양성을 위한 예산은 국고에서, 경기단체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등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둘째,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과 용산국립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교사, 남도 및 부산국악원 등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건립과 도서관정보화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구축에 못지않게 중요한 박물관·미술관의 유물과 작품구입비,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대폭 증액하였고 특히 단원 부족으로 공연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립국악원과 오페라·발레단의 인원을

증원하여 공연예술 활동의 질을 높이고 공연수요 확대에도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공연 문화의 산실이었던 구 명동국립극장을 매입하여 강북의 종합문예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의 창작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포스트 월드컵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의 국외홍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위원님들께서 지난 2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택에 주일본문화원 부지매입에 필요한 경비와 설계비를 국고채로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영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 영화진흥금고출연금 1500억 원 중 잔여분 200억 원을 차질 없이 반영하였고 문화콘텐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예산과 상암동 문화콘텐츠 복합공간 조성예산을 새로이 확보하였으며 그동안 기금에서 지원되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운영비를 국고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두 기관의 안정적 운영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관광수용태세의 개선과 수도권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관광숙박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사업추진 4년차인 남해안관광벨트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중간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여가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전국체전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해 주요 경기장 건립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을 위해 국고예산으로 그동안 현안으로 미해결되었던 선수수당과 급식비, 숙박비 및 코치수당 등을 인상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를 신규로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쉼터인 문화공간과 가족단위 수련의집 조성을 확충하였으며 청소년 상담 및 자원봉사활동과 국제교류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제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2003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85억 3400만 원으로서 금년의 162억 9400만 원보다 2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조 850억 8000만 원과 특별회계 80억 1400만 원 등 합계 1조 930억 9400만 원으로 2002년 1조 991억 1200만 원보다 60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소관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중무 지원에 218억 5300만 원, 문화정책에 953억 4400만 원, 예술진흥에 1006억 1600만 원, 문화산업에 1892억 6800만 원, 관광진흥에 2304억 5500만 원, 체육진흥에 1192억 5600만 원, 청소년육성에 256억 6300만 원, 기관운영 등에 284억 8200만 원, 문화예술기관에 2555억 7300만 원, 타 회계 전출금에 185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 43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230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우리 부 소관 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의하여 197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1년 말 현재 4729억 9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2년도 말에는 4709억 77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도에는 민간 모금액 및 예금이자 수입 등 조성규모가 979억 5500만 원인 반면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기금관리비 등으로 464억 89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으로 있어 순조성 514억 6600만 원을 합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누계액은 5224억 4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목표 4500억 원은 2001년 말 현재 기 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규모는 973억 7900만 원으로서 2002년도 678억 6700만 원보다 295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1999년도에 처음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1년 말 현재 1590억 2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2년도 말에는 1825억 3700만 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2003년도에는 국고출연금 및 운용수입 등에 따른 순조성액이 379억 9900만 원으로 2003년도 말에는 조성누계액이 2205억 36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3년도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용규모는 617억 7200만 원으로서 2002년도 810억 4600만 원에 비해 192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1년 말 현재 5140억 3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2년도 말에는 6447억 48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도에는 법정부담금과 운용수입 등에 따른 순조성액이 1540억 9800만 원으로 2003년도 말 조성누계액은 총 7988억 46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3년도 운용규모는 3098억 2600만 원으로 올해 운용규모 2252억 7900만 원에 비해 845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관광시설 등에 대한 용자와 여유자금 운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01년 말 현재 5064억 3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2년 말에는 4100억 5800만 원으로 2001년에 비해 963억 7600만 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2003년도에는 전입금 및 복권투자사업 등으로 3230억 200만 원이 조성되며 체육단체지원 및 법인세 등 기금관리비의 증가로 3431억 4400만 원이 사용될 예정으로 있어 2003년도 말에는 조성누계액이 2002년도보다 201억 4200만 원이 감소된 3899억 16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규모는 4160억 8300만 원으로서 2002년도 4555억 7800만 원에 비해 394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63조의 규정

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1년 말 현재 1972억 41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2년도 말에는 2329억 5600만 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2003년도에는 경륜사업수익 법정출연금, 이자수입 등에 따른 순조성액이 773억 6700만 원으로 2003년도 말 조성누계액은 3103억 2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3년도 운용규모는 1065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710억 1200만 원보다 355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육성사업 지원과 여유자금 예탁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裴基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비록 정부안이지만 2003년도 문화예산이 역대 최고인 정부예산의 1.15%를 달성함으로써 2000년 이후 4년 연속 정부예산 대비 1%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 업무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부 전 직원은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다양한 국민육구 충족과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선진문화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데 무한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정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부 간부와 소속기관장 그리고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朴文錫 차관은 현재 남북장관급회담 참석차 평양에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다음은 鄭泰煥 차관보입니다.
- 吳志哲 기획관리실장입니다.
- 尹淸夏 종무실장입니다.
- 李勝奎 문화정책국장입니다.
- 金長實 예술국장입니다.
- 劉震龍 문화산업국장입니다.
- 權慶相 관광국장입니다.
- 朴鍾文 체육국장입니다.
- 金斗顯 청소년국장입니다.

金泰根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장입니다.

李建鏞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입니다.

池健吉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입니다.

南基心 국립국어연구원 원장입니다.

申鉉澤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입니다.

金明坤 국립중앙극장장입니다.

吳光洙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입니다.

尹美容 국립국악원 원장입니다.

李鐘哲 국립민속박물관 관장입니다.

崔振用 예술원 사무국장입니다.

宋東根 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단장입니다.

다음은 산하 주요 단체장입니다.

趙洪奎 한국관광공사 사장입니다.

李文遠 독립기념관 관장입니다.

金正鈺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입니다.

金順珪 예술의전당 사장입니다.

李忠植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徐炳文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李鍾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金聖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원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단체장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우리 부 예산안 개요는 기획관리실장이, 기금은 기금 주체에 따라 관계 국장과 해당 단체장이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元昌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예.

○李元昌 委員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이미 금강산관광사업이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순수한 민간교류사업이 아니고 북한을 돕기 위한 정치사업으로 전락한 바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강산관광사업의 대가로 지원되거나 비밀리에 추가지원된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이용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강하게 국내 외에서 일고 있습니다. 달러의 흐름, 특히나 뭉치돈 달러의 흐름은 자국인 미국의 정보기관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1998년에 이미 밝혀진 남한에서 북한에 준 4억 불 외에 그 배 이상의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북한에서 각종 무기구입에 사용되었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강산사업의 전모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현대아산의 김윤규 사장이 비밀리에 입국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금강산사업의 전모를 밝히고 증언해 줄 김윤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김윤규 사장의 이번 귀국은 완전한 해외도피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의심이 가기 때문에 김윤규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까지도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의제를 본 회의에 상정하셔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그 문제는 두 분 간사 간에 상의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핵심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吳志哲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포되어 있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통해서 간략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안 특징을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유물·미술품 구입 등 소프트웨어 확대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해외문화원 건립 등 우리 문화의 해외홍보를 강화하는 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점 그리고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와 차질 없는 준비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의 세입예산의 경우 합계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약 50억이 증액된 378억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국립극장이 우리 부의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책특회계의 경우는 금년도에 비해서 역시 약 30억이 증액된 23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9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합계는 금년에 비해서 약 0.3% 정도 감액된 1조 1120억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문예진흥의 경우 금년 대비 12.5%가 증액된 246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 분야의 경우는 금년 대비 약 2.4%가 감액이 된 189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 분야의 경우는 금년 대비 5.3%가 증액된 2300여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육 분야의 경우는 금년 대비 약 25%가 감액이 된 119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국의 경우는 금년 대비 6.3%가 증액이 된 25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술원사무국 등 우리 부 산하 문화예술기관의 경우 금년 대비 약 1.2%가 감액이 된 274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회계의 경우는 농어촌지역의 도서관건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53%가 증액이 된 4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책특회계의 경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4.9%가 증액된 23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쪽부터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순증이 되었거나 특별하게 증액이 많이 된 그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종교문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금년 대비 57억 원이 증액이 된 1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의 경우 내년도에 완공될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70억이 지원이 되었고 내년엔 120억이 지원됨으로써 당초 약속했던 190억 원 전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송동 조계사 경내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전한 종교문화 육성과 관련해서 민족종교의 전통정신문화 교육활동지원을 위해서 4억 8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새로이 책정을 했습니다. 약 16개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민족종교협의회에서 정신문화교육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종교인들이 평화봉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난구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3억 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전통사찰관광안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억 6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창의적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과 관련된 예산은 금년 대비 165억 원이 증액된 77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금년 대비 약 20여억 원이 증액된 10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 도서관구입비를 금년 대비 약 40%가 증액된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열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지원을 위해서 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경주엑스포의 경우는 엑스포가 있는 해에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70억 원의 내용 중에는 내년도 행사운영비 50억 원과 황룡사 9층탑의 모형을 건립하는 예산 20여억 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7쪽의 문화정책 수립과 국어정책 연구강화 부문에 관해서는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3억 원을 새로 신규 반영했고 문화자원봉사 프로그램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비가 작년까지는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새로이 국고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한일 양국의 문화예술교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의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일문화교류회의 순수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어정책 연구강화와 관련하여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이 내년에 대폭 증액이 되어서 8억 65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단어 특히 표현하고자 하는 뜻에 부합되는 낱말을 찾는 장문용 사전 개발을 위해서 자연어검색 갈래사전 개발에 4억 원의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다음 1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술창작환경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금년 대비 33억 원이 증액된 994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金成鎬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사전에 자료가 배포되어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또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은 저희들이 여기서 그만 듣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면서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는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으신가요?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의 보고는 이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도 핵심부분을 잘 요약해서 이미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기금보고도 생략하고 그냥 가도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금운용에 관해서 보고를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 6건 예산안 및 기금 개요는 부록으로  
보존함)

○**沈載權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전문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문화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만을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세종계획사업입니다.

21세기 세종계획사업은 컴퓨터에 우리말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자동번역·음성인식·문서 자동요약 등 각종 응용프로그램이 우수한 성능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국어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말과 글만으로도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19억 6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어정보처리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래 지식정보화 시대에 독자적인 우리말 처리기술 미비로 인하여 국어 생존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화 시대에 이민족 간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세종계획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총 186억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금

년까지 70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국어기초자료 구축, 전자사전 개발, 한민족언어 정보화, 전문용어 정비, 국어정보화 여건 조성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언어정보처리에 관심을 가지고 대규모로 구축된 토대 위에서 언어정보처리의 기반이 되는 말 문치나 전자사전 등의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으나 우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취약한 여건 속에서 당장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기술발전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용량의 정밀한 국어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토대로 우리말에 기반한 언어정보산업이 육성되지 못할 경우 외국계 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국어정보처리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미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언어정보산업 분야에서 영원히 뒤쳐질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세종계획사업은 경제·문화·기술적 측면에서 국제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민족어의 존립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과 추진체계 및 기투자 부문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하여 향후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지원규모의 확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한국문화의 국외홍보사업입니다.

내년도 한국문화의 국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은 총 108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0.2% 감소한 수준이나 이는 주일본문화원 청사 신축을 국고채사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며 총 사업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4개의 해외문화원의 운영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우수문화상품 해외진출 지원 등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유네스코 문화 분야에 인력을 파견하고 LA청사를 개보수하며 독립청사를 확보하지 못한 주일본문화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은 자국문화 현지 진출의 전진기지역할을 하고 있고 현지인은 물론 해외동포의 문화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종합문화정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전 설립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재외문화원의 활동이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

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주일본문화원 청사 신축과 LA청사 개보수를 증액·신규로 예산 반영한 것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마당에서도 해외문화원의 활동이 예년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볼 때 해외문화원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에서 문화한국, 관광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해외 진출 기반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한국문화의 독창성·우수성 홍보 및 국제적인 우호 협력분위기 조성 등을 담당할 한국문화 소개의 전진기지로서 해외문화원의 역할이 과거와 동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홍보처 문화홍보원과 업무협조체제의 정비 및 통합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외문화원과 문화홍보원은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소속으로서 각각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홍보 활동의 주안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문화홍보 업무의 내용은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63쪽 문화산업기반조성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기반조성 예산은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수출증진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지방문화산업체의 창업보육과 공동장비 및 경영상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452억 원이 계상되어 금년 대비 17.8%에 해당하는 98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제1차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법·제도 개선 연구수행과 함께 제2차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산업진흥기금 출연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신설된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당초 1999년부터 5년 동안 매년 국고에서 500억 원씩 총 2500억 원을 출연하기로 계획된 사항이었으

나 금년도에 400억 원이 출연되었고 내년도에는 300억 원만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동 기금의 재원조성은 현재 정부출연과 운용수익에만 의존하고 있고 정부출연금도 곧 중단될 예정으로 있는 등 재원조성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실정이라고 보면 향후 기금의 운용에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신규 재원을 발굴하는 등 수입원 구조의 다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 예산안은 150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문화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1개소당 150억 원~200억 원씩 매칭펀드로 3~5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후자는 1개소당 20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문화산업체의 창업보육, 공동장비 및 경영상담 제공과 지역별 특화된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문화산업의 집적 및 시너지를 통한 발전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나 사업 성패의 관건은 지방비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지방문화산업단지 지원사업의 경우 막대한 지방비 규모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예산 150억 원의 경우 수시배정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9월 말 현재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지방비가 확보되는 대로 교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9월 말 현재 지방비 확보 현황을 보면 사업대상지역 9개 지역 중 지방비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천시, 춘천시, 제주시, 목포시 등에 불과하여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 WTO 서비스협상관련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2001년 11월 새로운 무역협상라운드 출범으로 WTO 회원국 간 무역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기대수준을 담은 협상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6월 말까지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도하각료회의 선언문에 따라 6월 28일 36개국에 대해 Request를 제출하였고 9월 5일 현재 20개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Request를 접수하였습니다.

Request 제출 이후 지난 7월에 처음 열린 제 14차 WTO 서비스회의에서는 양자협상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자국의 Request 주요내용과 제출배경을 설명하고 불명확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 등의 양자협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본격적인 케도에 오르고 있는 WTO 서비스협상과 관련하여 영화·방송·음반 등의 시청각 서비스를 포함한 문화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협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외국과의 무역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WTO 서비스협상관련 전문인력의 국제회의 참가 경비 및 연구과제 수행과 세미나 개최 경비 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심의 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지원사업은 과주출판단지 내에 국제적 수준의 복합시설인 출판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식문화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60억 원이 계상되어 금년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동 예산은 당초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30억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공기단축과 건축공사의 연속성을 위해 사업주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60억 원 전부를 일괄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사업주체가 우선 민자로 부지를 매입하고 2000년 현상설계를 통해 당선된 최종 설계안에 따라 지난 2001년 6월 15일 착공되었으며 금년도 정부지원예산 25억 원도 4월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인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수준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전략적 목표인 책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식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의 기능제고 및 출판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이라는 당초의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초의 목표공기는 2004년 말이었으나 이를 2003년 5월로 앞당기고 있는바 2003년 5월에 동 정보센터 건물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어린이 도서관화 축제'에 맞춰 무리하게 건축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75쪽 영화진흥금고지원문제입니다.

내년도 영화진흥금고에 대한 지원예산안은 200억 원으로 금년보다 1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 금고에는 금년도 지원분을 합해 1470억 원이 조성되었고 내년도까지 총 167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 금고는 영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을 목표로 1999년부터 적립되어온 것으로 한국영화의 안정적인 제작여건 조성과 영화제작·배급·상영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술영화전용관 설립과 관련하여 금년에 확보된 150억 원에 대한 집행실적이 없는 등 동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바,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를 계기로 종래 논란이 되어 왔던 상영관 확보방식이나 영화진흥위원회 운영 전용관에 대한 위탁운영방안 등은 물론 장기적 과제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하에 씨네마테크 또는 미디어센터를 각 도시별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국제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는 부산, 부천, 전주 등은 영화제의 운영주체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주요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입니다.

문화관광부는 내년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3대 국제영화제와 서울 여성영화제에 대한 지원 예산을 금년도와 같이 총 23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광주 국제영화제에 대하여도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개최 영화제에 대한 지원은 각 영화제의 수준과 위상을 강화시킴으로써 한국 영상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국산영화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부산 국제영화제에 대

한 국고지원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총 8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국산영화의 해외 진출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국제영화제는 명실공히 아시아지역 최고의 영화제로 부상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발전 및 세계 진출에 발맞추어 베를린, 칸, 베니스 영화제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로 키울 수 있는 대책 강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제 간 협력 및 분업을 유도하여 각 영화제가 특화되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9쪽 종합영상자료보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종합영상자료보존센터 건립사업은 영상자료의 안전한 보존기반을 마련하여 영상자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멸실을 방지하고 근·현대사 문화 사료인 영상물의 영구보존을 통한 국가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5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국제영상자료원연맹 회원국 중 자료보존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영상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과 국가문화유산의 후대 전승을 위해 독립된 보존공간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 설계비를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서울시 상암동 Digital Media City 부지 내에 보존센터 신축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도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안 심의 시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0쪽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예산안은 31개 사업에 581억 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0%에 해당하는 7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부산 2개 사업에 25억 원, 전남 19개 사업에 282억 원, 경남 10개 사업에 268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 내년도 예산안에도 동 사업에 169억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자원 및 다양한 문화유적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연계 개발하여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나 당초 2000년 사업 시작 당시 수시배정사업으로 분류됨으로써 예산배정과 지자체에 대한 교부시점이 늦어져 사업초기부터 예산집행이 부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보조금 이월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재원확보의 문제와 함께 불확실한 사업효과로 인한 민자유치의 곤란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비판적인 지적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남해안 관광개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동서화합 구현, 해양거점 지역의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세계적인 관광명소화로 국민관광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로 관광수지를 개선하려는 정책목표가 뚜렷한 만큼 현재까지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裴基善 위원장, 金成鎬 간사와 사회교대)

이와 관련해서 동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효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1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동 사업과 같이 대형 투자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 민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예산안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금년도 43개 사업에서 53개 사업으로 사업수를 확대하여 35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대비 15.0%에 해당하는 4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동 사업이 외에도 문화재청 내년도 예산안에 125억 3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경북 북부지역의 독특한 유·무형의 유교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

여 동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관광수입 증대효과와 함께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시배정사업으로 분류됨으로써 사업추진 초기에 예산배정과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일부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불확실한 민자유치 등으로 인한 비판의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개발지역은 세계적으로 전통유교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의 부작용으로 인한 고유의 전통·생활·민속 문화 등의 파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하여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효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향후의 적절한 추진방향을 설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검토에는 지방비의 확보 방안, 민자유치 방안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이 11개 시·군에 걸친 광범위한 관광지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역 간 연계프로그램을 통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당초의 취지대로 관광수입 증대는 물론 낙후된 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0쪽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조 1695억 원의 규모로 경기도 고양시에 30만 평 규모의 관광숙박문화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서 2002년까지 도비 10억 3700만 원이 투자되었고 문화관광부는 2003년도에 국비 10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조정과정에서 50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대비하여 숙박시설 8000실, 문화시설, 쇼핑시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수도권외의 관광숙박시설은 현재에도 약 3000실이 부족하고 2010년에는 약 1만 7000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사업 대상지역은 서울과 인천공항, 김포공

항 등에서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개발 기대효과는 직접적인 3만 5000명의 고용창출효과 이외에도 국내 관광숙박시설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외래관광객 유치 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주 밀레니엄관 건립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300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정상들의 제주방문 자취를 담은 기념관을 건립하여 관광자원화 하려는 사업으로 제주도의 환경과 평화를 형상화한 독특한 건축모형으로 제주의 상징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국비지원 예산 30억 원은 8월 말 현재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당초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57억 5000만 원보다 35억 원이 적은 2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관광상품 육성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상품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49억 2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9.8%에 해당하는 1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예품유통센터 설치 12억 원과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지원 3억 원 등이나 여타 문화산업 부문 지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의 민족정서와…….

○沈載權 委員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정책질의라기보다도 나중에 한정된 시간에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묻습니다.

아까 제주 밀레니엄 올해 예산 30억 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됩니까? 문광부 답변해 보시지요.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제주 밀레니엄 기념관이 정상의 집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주도를 방문한 정상들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연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沈載權 委員 간략한 그 내용 한 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 전부에게 주십시오.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예, 알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잠깐만요. 관광숙박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인천공항 주변에, 김포지구에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신문보도에서 보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지금 인천공항 주변과 김포매립지는 경제특구로 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러니까 관광산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경제특구의 내용 중에서 외자유치로 관광호텔이라든가 종합휴양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鄭柄國 委員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입지적인 조건으로 보았을 때 일산이나 김포매립지하고 인천 지역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상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결국은 고양 숙박단지도 마찬가지로 외자유치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업체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관광단지를 만들어 가면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서로 지자체 간의 경쟁하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좋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든가 또 그렇게 개발한 이후에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은 주무부처인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경기도로부터 설명을 듣고 신문에만 내용을 보니까 상당부분이 겹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고양 숙박단지는 사실상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사업이고 다만 경제특구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이고…….

○鄭柄國 委員 그런데 경제특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라든가 종합관광시설이 거의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아니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계획 단계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지금 관광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있는 것은 2001년도부터 관광숙박단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 후에 재정경제부가 경제특구를 하려고 하면서 지금 새롭게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내용상에 있어서 지금 鄭柄國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개별적으로는 장관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鎬**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계속 보고해 주시고, 보고하실 때에도 이미 이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가 됐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고유의 민족정서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공예상품의 개발 보급은 국가이미지 창출과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그 나라 공산품 전반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주는 심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 공예상품 개발 육성, 한국관광명품점 운영, 공예종합센터 구축, 지역공방 지원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유통지원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관광문화상품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나 대부분의 관광지에서는 아직도 20~30년 전 수준의 관광문화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공예품들을 지역별·관광지별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선호에 호응토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적 수준의 한국의 공예명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 창의력이 가미된 아이디어 상품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공예명품들은 거의 현대적인 미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공방설치 지원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부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공예 중에서도 개인의 능력으로 공방 설치가 어려운 유리·금속

공예 부문 등에 대한 공방설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와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금년도 8월 21일 국회에서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결의안이 통과되었고, 8월 28일 IOC 집행위원회는 평창, 밴쿠버(캐나다), 잘스부르크(오스트리아), 베른(스위스) 등 4개 도시를 공식 후보도시로 선정하였으나 9월 27일 스위스 베른이 유치신청 철회를 발표함에 따라 3개 도시가 2010년 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 캐나다 밴쿠버는 1988년에 인근 캘거리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였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1964년과 1976년 2차례나 인스부르크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였으므로 평창의 유치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 대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IOC 추진일정에 맞추어 적극적이고 원활한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지원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지난 1997년에 설립된 동 협의회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18억 원이 계상되었는바, 동 협의회는 공동체적 시민의식 배양을 위한 친절·질서·청결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전개하여 선진문화 시민의식 정착 기반 조성 및 월드컵, 그리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협의회의 사업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 즉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형성된 문화시민의식을 범국민 실천으로 정착시켜 국가위상 정립 및 선진사회를 구현하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이나 최근 시민부문의 급격한 성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시민운동을 현재와 같은 공공조직에서 계속 추진토록 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대구U대회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동 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 이후에는 순수 민간단체가 그러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업무전환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지원하는 예산안은 423억 2900만 원으로 금년대비 89.0%에 해당하는 19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여기에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분 171억 원을 합할 경우 총 594억 29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대회는 올림픽 다음으로 많은 전 세계 170 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이고 세계 신기록도 많이 나오는 국제대회로서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짧은 준비기간과 경기장 신설 없는 대회준비로 역대 국제대회 사상 가장 최소의 재정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아시안게임의 19% 수준입니다.

동 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대회규모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 대회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을 부족하게 할 경우 대회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상황에서 내년도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유서 깊은 전통문화와 세계적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운영비 중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는 271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대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구입비 증액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비가 크게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국립박물관 유물구입비는 전년 대비 40% 증액한 70억 원,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구입비는 전년 대비 130% 증액한 29억 9000만 원, 국립현대미술관 작품구입비는 전년 대비 67.5% 증액한 43억 원입니다.

그간 문화부문 예산이 하드웨어적 측면에 편중되어 소장품 확보·전시방법의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부실하였음이 늘 지적받아 왔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비의 대폭 증액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반영

한 것으로 긍정적인 예산편성으로 인정되며 오랜 기간 소홀해왔던 이러한 내실화 부문은 지속적인 증액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와 함께 그간 지적되어 왔던 유물관리 소홀 문제 등도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립박물관의 유물구입비 증액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용산에 건립 중인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개원할 예정으로 공사와 유물확충 등이 진행 중입니다.

용산중앙박물관은 현재 전시공간의 4배에 달하는 크기로 전시유물 수량은 1만 2000여 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전시유물은 1만 664점입니다. 특히 동양영역 전시실 중 동남아시아실과 일본실은 아직 확보된 유물이 전무한 실적입니다.

○鄭柄國 委員 이 부분은 지난해 예산 때와 국정감사 때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새로 신축하는 용산중앙박물관에 4배에 달하는 전시공간이 확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동양영역 전시실에 대한 유물이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보면 70억 예산이 용산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 전체 유물구입비가 아닙니까?

제가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70억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유물구입을 하는데 몇 점을 구입하면 끝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전혀 안 세웁니까? 지금 개관을 하더라도 당분간 전시물을 확보 못 해서 빈 공간으로 남겨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용산중앙박물관 전시물을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는 예산운용 관계상 자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국고뿐만 아니고 사회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유산으로서 이런 것들을 기증하는데 우리 사회문화는 아직 거기까지는 적극적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고의 확보를 위해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사회·문화적으로도 기부문화를 위해서 문화관광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계속 반복되는 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 보세요.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동 전시실의 유물확보를 위해 관련국들과 대여교섭을 추진, 전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나 유물대여는 기능보완이나 교류협력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며 근본적인 유물확보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내실 있는 용산박물관 개관을 위해서는 유물구입비가 현재의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기증·민간소유 동산문화재의 기탁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대미술관은 한국미술의 세계화 사업으로 2003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신규 확보하였으며 동 예산으로 외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회고전 초청과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순회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거장들의 초청전은 우리국민들의 미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순회전은 세계 미술 속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총체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일본이 동경올림픽이 끝난 후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 대규모 일본 현대미술전을 개최하고, 불란서의 자크랑 문화상이 1980년 취임직후 세계 미술 속에서 추락하고 있는 불란서 현대미술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뉴욕에서 집중적으로 현대미술전을 개최한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미술관이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미술의 중심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과거 한국미술 5000년 전과 같은 규모의 현대미술전을 세계 주요도시에 순회전시하는 문체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회계연도 문화관광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도 몇 가지 문제점만을 발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문화상품 개발 용자사업입니다.

내년도 문화상품 개발 용자사업 예산은 290억 원입니다. 동 용자사업은 게임, 음반, 영상물,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전자책 발간, 문화원형 개발, 캐릭터 등 우수문화상품의 제작비를 지원

함으로써 창작력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지금까지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2001년도 집행실적은 계획 대비 36.6%에 해당하는 144억 9800만 원에 불과하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9월 말 현재 계획 대비 62.8%에 해당하는 175억 9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1년도와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용자업체들이 동 기금의 용자지원에 대하여는 대체로 만족하면서도 그 지원방식에 대하여 일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자금 대비 지원금액에 대하여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고 제작비 초과금액에 대하여 용자를 받을 수 없는 점, 현행 용자금액의 거치 및 전체적인 상환기간 등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금이 당초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지원금액의 규모, 거치 및 상환기간 등을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게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목적외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용자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기투자비용이 가장 많다는 점과 영세기업의 자금조달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용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또한, 용자포기의 원인으로 지적된 담보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담보나 신용용자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용자사업의 경우에도 문화상품 개발 용자사업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투자조합 투자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산업투자조합 투자에 200억 원이 계획되었으나 내년도 운용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동 투자사업은 첨단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전략 및 소재사업의 문화상품 등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결성된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문화상품개발 용자사업이나 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용자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담보물 제공의 어려움이 그 주원인이라고 볼 때 창의적 아이디어와 국제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영세하

여 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투자조합 결성에 대한 지원이 용자사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탁금 회수 규모를 확대하거나 또는 용자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동 투자부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예진흥기금 2003년도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의 2003년도 지출계획안을 보면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으나 사업비, 사업운영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에 그치고 대부분 여유자금 운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중장기 안정화를 감안하더라도 여유자금의 비중이 너무 높아 순수문화예술진흥이라는 기금 본래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입증가에 비례하여 사업비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절차 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문예진흥기금도 금년부터 국고예산과 같이 5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에 최종 확정되는 등 기금운용절차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전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의 심의는 동법의 절차를 준수하고 기금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지원심의회 등은 문화예술계 인사로 구성된 기금지원심의회위원회를 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세부사업별 대상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반면에 문예진흥기금이 타 기금에 비해 사업대상자가 월등히 많으며 기금사업의 40% 내외를 차지하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있어 예산확정전에 지원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는 문제와 지원신청부터 지원확정까지의 일정이 현행 3개월에서 최소한 10개월로 늘어나게 되는 문제를 들어 우려하는 의견이 강합니다.

개개의 공모사업의 선정까지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 절차의 복잡성과 비탄력성의 우려가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공모사업의 대상자까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에는 일부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서 불투명한 요소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성 우수기획사업 선정 지원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문예진흥원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각 사업의 기본적인 사항—타당성, 규모, 지원수준, 선정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문예진흥원의 기금운용계획안 각목명세서는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별 총액만을 제시하는 개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시하여 보다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성 사업 이관입니다.

2001년도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되게 됨을 계기로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서는 그간 국고성 사업으로서 기금의 역할에 맞지 않다고 지적되어온 7개 정책성 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국가적 문화 인프라의 구축, 국가 문화행사의 추진, 소속기관이나 산하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지원, 문화예술 여건조성 사업 등을 국고사업으로 일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민간부문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창작·연구·보급 지원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본다면 이번 1차 국고전환을 시작으로 향후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의 바람직한 공공지원의 역할 재정립을 통하여 순수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기금 고유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국가정책 차원에서 차별화된 역할 분담으로 공공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살릴 것을 기대합니다.

○鄭柄國 委員 장관님,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 장관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적정규모를 약 1조 5000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올해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1조 5000억 원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하는 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하에서 이 예산을 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1조 5000억 원에 대한 것은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 계획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협의하기 전에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의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을 갖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다음은 대한민국미술대전 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미술·공예·건축대전, 서울창작음악제, 대한민국작곡상 등 각종 전국규모의 예술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이를 위해 5억 8800만 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 규모의 예술행사는 장르별 대표행사 지원을 통하여 예술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을 위하여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80년대 민간으로 이관되어 현재 민간자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서 이를 계속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행사의 경우 심각하게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경우 매년 심사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국전의 권위가 극도로 훼손되어 왔으며 대다수 미술인의 외면 속에 급변하는 미술계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술문화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가 관장하던 국전이 전국민적 관심사였던 시절에 비하여 너무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발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방안으로써 미술축제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비엔날레 또는 연례전 형식으로 하고 현대미술관이 주관토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미국 뉴욕의 위트니 비엔날레가 미국 현대미술을 끌고 나가는 대표적 산실이 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도가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 총 38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각 시·도별로 2억 4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로 차등을 두고 있고 이는 2000년 이후 동일한

수준입니다.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지방문예진흥기금은 1984년~1990년 종자금으로 문예진흥기금 139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한 것으로 2001년 말 현재 총 2082억 원이 조성되었고 2002년에는 총 97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중앙집중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자립 및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억 원이 못 되는 지방 문예진흥기금 운용금의 수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의 각 시·도별 지원금 평균 5억 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방문예진흥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에 따라 조성 및 관리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000억 원대의 기금을 조성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나 문예진흥기금 지원금만을 배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시·도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예진흥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외에도 지원심사에 대한 지도·업무협조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金成鎬 간사, 裴基善 위원장과 사회교대)

○沈載權 委員 아까 문화관광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때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열악한 지방재정의 형편상 내년도에 150억이 계상된 것이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강화 필요성이라고 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지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올해 지방문화산업 기반지원으로 집행된 내역,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된 내역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알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다음은 문예진흥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문예진흥기금이 조성목표로 제시한 2004년까지 총 4500억 원은 적립금 개념으로서 평가 계정 등이 포함된 순조성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적립금 개념으로 보면 2002년 계획상 적립금은 4244억 원, 2003년에는 추가 적립금은 508억 원으로서 기금 목표달성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 기금 조성의 주요한 재원이었던 공연장 등으로부터의 기금모금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2004년도부터 모금이 폐지됨에 따라 향후 기금 운용수입에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기금 조성 목표를 4500억 원으로 수립한 것은 당시 정기에금 수익률 12%를 기준으로 연간 540억 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이를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정기에금 금리가 5%대로 하락한 현 실정에서는 기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의 운용수입으로는 현재 규모의 문예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 예술장르의 활성화 및 다양한 장르 출연에 따른 기금 수요 증가, 주5일 근무 등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문화예술 향수층 증가, 지역화를 위한 지방 지원 수요 확대 등 기금 수요가 증대한 것을 감안할 때…….

○鄭鎮碩 委員 잠깐만요. 그대로 죽 읽어 버리지 말고 요점만 하세요.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49쪽 하단에 2003년 말부터 공연장으로부터의 기금모금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기금조성액의 상향 조정 및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문예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문화관광부 및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법제화라든가 경륜·경정법 제15조 “수익금의 사용” 항목의 개정 등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보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방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유익한 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1. 2003년도예산안(계속)

### 나. 문화재청소관

○委員長 裴基善 다음은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財廳長 盧太燮 문화재청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裴基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하면서 내년도 정책방향과 예산안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은 지난 1999년 5월 청 승격 이후 여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아울러 문화재 관리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새롭게 대두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문화재 관리 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재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문화재기본계획은 앞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 정책이 일관된 정책기조 아래서 안정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고 문화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는 문화재기본계획의 큰 틀하에서 민족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전승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족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접근하고 문화재보수정비의 부실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문화재 보존 관리와 개발과의 이해상충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이를 조화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문화재의 활용·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향유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관련사업들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재 보존 관리의 정책방향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2003년도 사업내용과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매점사용료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에 71억 5700만 원보다도 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은 금년 예산 2994억 400만 원보다 약 339억이 늘어난 3333억 6800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 대비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230억, 기본사업비가 약 10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3000억으로서 그 사업의 주요항목을 말씀 올리면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위해서 206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여 전국 단위 문화재와 백제·신라·중원 등 7대 문화권 사업 그리고 경복궁·창덕궁 등 조선왕궁을 복원·보수 및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48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야역사문화환경을 정비하고 유교문화권 및 남해안관광개발권 내 문화유적을 관광기반사업으로 정비하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鄭柄國 委員 잠깐만요. 문화재관광자원을 위해 가지고 투입되는 사업비하고 문화관광부 본부 예산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나 유교문화권사업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국가나 지방 시·도의 지정된 문화재를 정비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입니다.

○鄭柄國 委員 정리를 해 가지고 현재 기 투자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나 유교문화권사업하고의 총액을 한 번 뽑아 보셨어요? 장관님,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세운 예산하고 총액 개념으로 그것을 단위별로 뽑아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鄭柄國 委員 국장님,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예,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것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예.

○文化財廳長 盧太燮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를 위한 사업비는 108억 500만 원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활동을 활성화시키며 전승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데 주력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시·공연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국민이 전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 기반구축에 8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여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등을 통해 동산문화재를 보호하고 중앙매장문화재보관센터 건립, 전국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등 매장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및 문화재 기록보존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9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난 및 멸실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를 건립하고 동굴, 지질 등 자연유산 자원의 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조사연구와 과학적 보존처리 및 국제교류·협력에 17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여 문화유적 조사연구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제교류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사운영 및 시설관리에 5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여 전통문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다져 나가는 등 발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재청 예산안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후손에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문화재 보존 관리 행정의 현안과제 해소와 문화재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예산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함께 정책사업 수행에 있어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보다 성실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문화재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焱 문화재기획국장입니다.

宋寅範 문화유산국장입니다.

金奉建 국립문화재연구소장입니다.

金秉模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올려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잠깐만요. 청장님, 매년 제가 국감을 해 보고 예산심의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인데 예산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들어 보면 전혀 우리가 국감 때 지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이 예산의 제안설명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 때마다 반복되게 지적을 당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文化財廳長 盧太燮 그렇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래서 지난해 예산안과 올해의 예산안을 대비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입니까? 지난해 예산편성했던 것하고 올해 편성했던 것하고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에다 중점을 두고 한 것입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문화재사업은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鄭柄國 委員 그러니까 계속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을 올해에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딱 짚어서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文化財廳長 盧太燮 지난번에 이월사업이 많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크게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鄭柄國 委員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니까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화재관리 시스템상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예, 그렇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러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무엇을 편성했어요?

○文化財廳長 盧太燮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鄭柄國 委員 전혀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허공에다 대고 우리는 국정감사 때

일 해도 ‘너희들은 떠들어라.’ 이런 얘기밖에 됩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바꾸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裴基善 鄭 위원님, 협조해 주시고요. 보고 다 끝나셨습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아직 제안설명밖에…….

○委員長 裴基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수고하셨고, 아까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요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준비과정에서 문화재청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본개요안을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략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孫俊哲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孫 전문위원이 가정상의 이유로 오늘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도 함께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위해 여야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문화재청하고 문화관광부를 다 하는데 10분에 하라는 얘기에요?

○委員長 裴基善 간사들 간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꼭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또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鄭鎭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鎭碩 委員 鄭鎭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우수문화상품 금년도 해외 진출 지원내역, 내년도 계획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는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성공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점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인 어떤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는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 문화를 국외에 홍보하는 그러한 정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한 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에 걸맞은 우리나라 교역규모나 경제규모에 걸맞은 우리나라의 문화국가 이미지 구축정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단 예산 외형 규모로 보면 한국문화의 국외홍보사업을 위한 예산은 금년도 130억 정도, 내년도 530억 정도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경문화원 청사 신축에 420억, LA문화원 개보수 9억 2000만 원, 시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가용예산이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 예산이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실효를 거두고 있나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해외문화원을 두고 있고 국정홍보처에서 문화홍보원을 두고 있고 그런데 제가 사실 방문해 보면 사진 전시하고 책 전시하고 해서 사실 상대국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들리는 경우는 전무하거든요. 과연 정말 해외 전시용 홍보가 계속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발상을 바꿔 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외국의 주요 인사들 특히 언론인들, 우리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실효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초치형 체험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해외문화원, 문화홍보원의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고 이에 따른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통합하고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서도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문광부의 청소년육성정책 이것 역시 정말 제대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청소년정책이라는 것의 핵심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될 텐데 과연 문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이 거기에 부합되고 있는지, 우리가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청소년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위성방송채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른바 미디어산업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고 다채널 전문방송 시대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채널을 보면 전부 성인대상이라는 말이지요. 청소년대상채널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의 교양·문화 지식정보 등 인성함양에 필요한 청소년전문채널을 갖다가 우리가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가 미디어 시대라는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미디어교육이 확대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미디어교육의 예산을 보면 1999년도에 20억 원, 2001년도에 10억 원, 작년도에 20억 원, 2003년도에 다시 15억 원 들쭉날쭉합니다. 미디어교육이 다른 나라 특히 OECD 선진국들을 보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국가 주요 인프라를 육성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요.

이것은 당연한 자세인데 우리나라의 미디어교육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혀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따른 예산도 들쭉날쭉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사대상 미디어교육을 실시했는데 171명의 현직교사가 연수에 참가했습니다. 참가 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가 만족도를 표시했고 그 이후에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수강신청자의 50%도 채 수용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장관이 좀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 언론 문제인데요. 몇 차례 중앙 일간지에도 보도가 된 사안입니다마는 청주지방 검찰청이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잇따라 보도한 지역 주간지에 대해서 주간지 사주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지자체의 공보관련 공무원들과 이 매체에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인들을 아주 여러 명 소환 조사하면서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리뷰’라는 충북 지역의 주간지인데 사주가 공사관련 입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고 지금 사원들이 철야농성을 14일부터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이것이 비판언론에 대한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서 시리즈로 비판을 막 하니까 검찰에서 표적을 해 가지고 매체를 혼내겠다 이래서 보복 차원의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의 형태가 아니냐, 일종의 언론탄압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일 그것이 정말 사실일 경우에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장관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광부가 내년도 문화부문 예산 중에서 국립오페라단이 지금은 단장과 사무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원 2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지요. 여기에 대해서 오페라단 단원이 정말, 단원 채용하면 매달 월급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과연 단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발전적인 발상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페라 발전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또 가뜰이나 국립오페라단 공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매달 월급을 주는 단원을 두는 것이 예산낭비요인은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문화재청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柄國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柄國 委員** 鄭柄國입니다.

먼저 문화관광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한글자료들을 종합 정비하겠다는 계획 아래서 1910년 이전에 만들어진 한글관련 자료를 선정해서 매년 10여 종씩 영인·역주디지털화사

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鄭柄國 委員** 그리고 올해 훈민정음 소학언해라든가 석보상전, 월인석보, 용비어천가, 춘향전 등 100여종을 선정하고 2004년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여종씩 2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반영된 예산은 1종당 1000만 원씩 10종, 총 1억 원입니다. 장관은 최초 종당 2500만 원씩 결정했던 예산이 50%도 안 되는 1000만 원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 예산으로 최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창제 이후 1910년까지의 기간에 나온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한글자료는 수십만 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는 2001년 5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100여 종을 선정했고 실제 수십만 종에 이르는 한글자료들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이 가게 합니다. 또한 100여 종의 자료를 10여 년에 걸쳐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 실제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이 상태도 살펴보지 않고 하는 사업은 아닌가,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물 제582호인 선조 2년간 월인석보 판목의 경우 습기가 차 있는 보장각의 일반 종이박스에 포장되어 있어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래의 유물 조차도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있는데 영인·역주디지털화를 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은 아닌지, 따라서 장관은 현재 선정한 한글문화유산의 보존상태를 먼저 면밀히 검토하고 보존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한글문화유산에 대한 보다 광범한 조사를 통해서 100대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중요한 한글문화유산들을 모두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 해외소개사업 및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문화 해외소개사업을 살펴보면 해외문화원 4곳에 대한 지원, 한국문화상징홍보, 우수문화상품 해외 진출 지원 등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 대한 월드컵 문화사절단 파견, 중국

과 베트남과의 수교 10주년 행사,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사업,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코리아 먼스 행사 등입니다. 월드컵사절단을 제외하면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에 한정된 우리 문화 해외소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해외문화원 기능 활성화 예산이 48억 6500만 원, LA문화원 개수 및 보수예산이 9억 2000여만 원, 주요 한국문화원신축예산이 421억 6000여만 원, 해외문화원 자료구입비가 4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해외문화원 중심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항목도 정상외교, 국교수립 행사 등 계기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한일월드컵과 아시안게임으로 높아진 국가위상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 부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부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 등에 편중된 사업으로 아시아 각국과 아프리카, 남미 등 제3세계 국가에 대한 홍보는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우리 문화홍보가 부재한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기존 사업에 안주하는 편의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장관은 우리 문화의 해외홍보를 보다 다변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라고 다음은 도서관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문화관광부는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속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화사회의 정보수집 및 관리 중심에서 정보서비스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자립형 도서관에서 네트워크형 도서관으로 그 기능을 변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까지 도서관 조직 및 기능 재구조와 도서관 정보서비스 고도화, 국가대표도서관 역할 강화, 도서관 환경개선 등을 위한 연차별 투입 예산규모를 국비 1조 1899억 원, 지방비 1조 3583억 원으로 총 2조 5382억 원으로 정했는데 이러한 계획 아래 2003년 관련예산을 총 775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실제 반영예산은 44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반영예산의 항목을 살펴보면 또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됩니다. 먼저 도서관 환경개선 항목에는 공공도서관 건립 확충과 도서관 장소 확충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매년 반영되고 있는 예산이고 도서관 정보서비스 고도화 예산 중 디지털콘텐츠 확충 및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예산도 작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번 계획의 주요 항목인 공공도서관 역할 강화 예산과 도서관 조직 및 기능 재구조화 예산,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국민독서문화 진흥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왜 이러한 도서관발전계획을 발표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을 주요 국가별 공공도서관과 비교해 보면, 1인당 장서 수가 미국 2.59, 영국 2.25, 프랑스 1.53, 캐나다 2.29, 일본 2.19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0.56에 불과합니다. 도서관 1관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차별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건립도 중요하고 장서구입 예산 확충도 절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장서수와 공공도서관 확보에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진국 수준에 뒤지지 않는 도서관 정보화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의 도서관 정책은 겉으로만 화려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투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도서관 발전 계획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매년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도서관 장서구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출판계와 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외래관광객이 대폭 감소가 되어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래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책 예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동남아 각국들은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경기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러한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왜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관광객 유치 대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에서 발표했던 목표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밝혀낸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매년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예산이 일률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15% 증가해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경우 581억 원,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경우 357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만 보더라도 쇠귀에 경 읽기입니다. 안 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약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일률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게 일률적인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이월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는가,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검증도 하지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연차적으로 계획된 바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지출을 합니다.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복원 정비 사업은 1단계 침전 지역, 2단계 동궁지역, 3단계 태원전 지역, 4단계 흥례문 지역 복원을 거쳐서 이제 5단계 사업인 광화문 및 기타 권역 복원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초 계획서에 따르면 광화문 권역 공사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어야 하나 2002년 10월 현재 복원 정비관련 기술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 진행되어야 할 본격적인 복원 사업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광화문 권역 복원관련 기술 용역을 맡겼으나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초 용역 마감 기간은 7월까지였으나 서울시와의 도시계획 협의와 연계됨으로 인해 용역 기한이 늦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광화문 권역 복원계획 수립은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주요한 사항이 누락된 채 서울시와의 의견 합의만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서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문화재청장은 광화문 권역 복원계획 수립 전에 서울시 등과 밀접한 논의를 거쳐 기술용역을 발주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과정이 미진했던 사유를 밝혀 주시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 말 용역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집행할 예산이 없을 경우 연구용역 결과는 1년 이상 사용을 못 하는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말 연구용역이 완성될 경우에 2003년에 집행할 사업계획 및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출토유물보관동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급증하는 출토 유물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경주출토유물보관동은 현재 경주의 왕경지구 및 월성지구에서 출토되는 수만 점의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2년 10월 현재 경주출토유물점 수는 5만 9881점으로 이 중 2만 8583점은 부여 연구소에 임시 보관 중이고 나머지 유물은 가건물에 보관 중이어서 유물의 화재와 도난·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주출토유물보관동 건립 사업은 사업계획의 미비로 건립 일정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예산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청장은 이렇게 부실한 사업발주를 하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새로이 책정된 예산과 사업 기간으로 유물보관동을 문제없이 지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 계획 문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도서교환권 배부를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책을 읽게끔 하기 위한 취지와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개선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예산은 새로이 출범하는 문화관광정책개발원의 위상을 고려하고 기금 사용의 원칙을 감안해 볼 때 문화관광정책개발원의 예산은 국고에서 일괄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축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1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는 약 353억 원 정도였으나 2002년에는 282억 4200만 원으로 약 70억 원이 줄어들었고 2003년 예산안은 약 7억 7000만 원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한 세계무용축제, 한국민속예술축제 등의 사업비 15억 원이 국고로 전환됨으로써 실제로는 2003년 사업비는 2002년 사업비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문예진흥기금의 사업비 축소 운용은 문예진흥기금 설치 본래의 목적 즉,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예진흥기금을 설치한다.”는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문예진흥기금의 2003년도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43%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년도와 비슷하다는 것은 사업비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특히 여유자금 운용액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240억 원이었으나 2003년에는 508억 9000만 원으로 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문예진흥기금의 실제 목적에 맞는 사업비가 문예진흥기금 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문예진흥기금의 2003년도 사업비 책정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예진흥기금 설치의 실제 목적에 맞도록 사업비를 확충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통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어렵게 세계사물놀이대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1년만 하고 없애 버렸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군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지원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은 포스트 월드컵 사업과도 연관해서 보았을 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

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화재청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신개발 조처 현황을 보면 현행법상으로는 공신개발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는 답신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업체를 지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이런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裒基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鐵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鐵相 委員 장관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500만 명 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중에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관광객과 특수 목적을 띠고 오는 관광객 숫자의 통계를 혹시 분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관광목적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입국심사할 때 목적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목적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尹鐵相 委員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尹鐵相 委員 이제는 순수 관광목적보다는 특수 업무목적 띠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요?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尹鐵相 委員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관광목적이 더 많습니다.

○尹鐵相 委員 그러면 단순 관광목적과 특수 업무목적 띠 방문객 숫자 중에 체제일수나 체제기간의 평균소비액에 대해서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저희가 국제회의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별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尹鐵相 委員 컨벤션 회의 참석이나 단순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체류기간과 소비액이 어느 쪽이 많은지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컨벤션 참가자 같은 국제회의 참가자가 소비율도 높고 체제일수도 겁니다.

○尹鐵相 委員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방금 관광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회의 참석자가 체류일자도 많고 체류기간 동안 소비액수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국제회의 산업이 관광산업의 꽃으로 전 세계가 컨벤션 센터 건립에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국제회의 유치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순 관광객의 체제일수는 약 4박5일인 데 반해 컨벤션 회의 참석자는 약 일 주일 이상이고 소비액도 약 3300달러 가까이로 보통 관광객보다도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코엑스를 비롯해서 부산, 대구, 제주 등등에 컨벤션센터 건립에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는 2002년 1월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해서 공포함으로써 국가전략 차원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국제자유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관광의 핵심 인프라가 될 컨벤션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컨벤션센터의 총예산이 1806억이고 거기에 공공재원이 900억이고 민간재원이 906억, 공공재원 중에서 정부예산이 450억이고 제주도와 제주시·군의 예산이 450억 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부산의 백스코와 대구의 엑스코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몇 %씩 지원이 됐습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37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尹鐵相 委員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원비 450억 중에 370억이 지원이 됐고 약 80억이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예, 지금 미지원액이 80억 원입니다.

○尹鐵相 委員 미지원액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는 지원이 다 끝나 버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제주도 국제관광 종합센터, 이른바 컨벤션센터는 금년도 완료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까지 국고 340억 원과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이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80억 원을 현재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尹鐵相 委員 그래서 다른 경우를 보면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산의 백스코 컨벤션센터는 총사업비 1600억 원 중 국고지원이 530억 원으로 33%를 지원했고 중소기업청이 추진한 대구의 엑스코 컨벤션센터는 총사업비 1740억 원 중 국비 750억 원이 지원됨으로써 총사업비의 43%를 국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관광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소요액 1806억 원 중에 국고지원이 370억으로 20.5%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고지원이 25%가 기본 마지노선인데 다른 지자체에 33% 또는 43%까지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 문광부가 지원하고 있는 제주 컨벤션센터는 20.5%를 지원하고 나머지 4.5%인 80억 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지원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현재 370억 원을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도까지 사업이 연장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80억 원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국고지원 계획상 금년도에 사업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尹鐵相 委員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부지매입비는 국고지원에서 빠져야 된다는 견해차이 때문에 20.5%를 지원하고 전부 지원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그 반대의 견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요?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예.

○尹鐵相 委員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나 대구의 경우에는 25%를 훨씬 능가한 33%, 43%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25%도 지원해 주지 않고 부지매입비도 제외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국비 80억이 미확보되어 있고 지방비는 제주도가 부담하는

비용은 완료를 했고 시·군에서는 2003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어서 62.5%가 미확보되어 있고 민자투자 부문에서는 컨벤션산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4000여 주민이 참여해서 도민주를 발행해서 425억까지 충당해 나가면서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2003년부터 개관할 것으로 전제로 해서 이미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에는 14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추진에 잘 안 되어 가지고 예약된 국제회의가 취소됐을 경우에 국제신인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주식형태로 투자를 해 가지고 자금이 투입된 예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제주도민의 열의와 애乡심을 보아서라도, 물론 국가재정이 어려운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80억 원에 대한 재정보화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끝으로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간 협력의 증진과 교류가 갈수록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 산업이 관광산업의 꽃이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제주도 컨벤션센터가 원래 2002년도 말에 개관하기로 했던 것을 조금의 차질이 있고 5000석 규모를 3500석으로 줄인 이유 중의 하나도 IMF 외환위기 당시 모든 것을 감안해서 3500석으로 줄였고 개관일자도 2002년 말에서 2003년 초로 연장을 했는데 재원 미확보로 인해서 개관이 더 늦추어진다 하는 경우에는 가뜰이나, 올해의 월드컵 또는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신인도나 이미지가 좋아진 상태에서 이러한 국제회의 예약건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런 것이 다 취소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앞서 지적했듯이 컨벤션 참석자들이 체류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 동안에 쓰는 소비액도 보통 관광목적으로 오는 외국인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점들을 감안해서라도 중앙정부의 80억 재정을 꼭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분야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秉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秉浩 委員 문화산업 육성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5%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화산업 지원이 순수문화예술에 비해 급격히 증대되면서 순수문화예술에 소홀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문화산업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순수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상의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역문화 발전과 관련해서 현재 부산, 부천, 전주, 광주 등지에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중 수도권에 속하는 부천을 제외하면 각 지역의 영화제는 지역문화의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관광상품화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영화제의 경우에는 이미 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자리잡으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인정받고 있고 또 영화 마케팅이나 영화산업 등 영화관련 제반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지원이 예년과 같은 수준인 10억 원에 그치는 것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전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단순한 문화적 측면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영화제 성장에 맞추어서 이에 대한 지원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국악원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도 여기에 다소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도에 설립되는 남도국악원의 경우에는 부지가 약 3만 8000평이지만 부산국악원의 경우에는 연건평이 5000평입니다. 그래서 건평에 비해서 부지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또 국악원이 주택가 안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주변여건을 개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일부 추가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또 장관께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부산국악원 설립에 따른 기본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은 내년 중에 이루어져야 설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그것이 없으면 또 공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 방문의 해’ 사업이 다소 또는 부분적으로는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관광인프라 구축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 및 수용태세 개선에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이다 월드컵이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대폭 배정을 하는 수도 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주5일 근무 등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국민들의 관광·레저 활동 등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래관광객의 80%가 방문하는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은 현재에도 약 3000여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조성할 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은 좀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2003년 예산에는 50억 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관광숙박문화단지는 2000년 7월 대통령 주재하의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결정된 국가사업이므로 지원규모가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成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鎬 委員 金成鎬 위원입니다.

저도 일부는 직접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산 편성이 하드웨어 구축 등과 같은 외형적인 확대에 치중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지적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내년도 문화예산이 정부예산 대비 1.15%를 확보해서 2000년도에 이어서 4년 연속 1%를 넘어선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잘 지적했지만 예산의 56%가 건물과 시설을 늘리는 하드웨어 확장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진흥에 91.4%, 문화정책기반구축에 71.1%, 국민체육진흥에 46.8%, 문화예술활동지원에 39.6%가 건물과 시설 확장과 같은 하드웨어 확충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도에 10억 원 이상 예산이 증액된 분야를 보면 역시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지원이 118억 원에서 152억 원으로 28.5% 늘어났고 청소년시설 확충 및 지원이 67억에서 83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국립극장 개보수가 2억 5000만 원에서 37억 6700만 원으로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습장 확충 및 시설관리가 6억 6400만 원에서 21억 2900만 원으로 220%나 증가되는 등 대부분 건물 건립과 시설관리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과 같이 소프트웨어 분야인 문화시설·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보급에는 3억 5000만 원밖에 배정이 되어 있지 않고 도서관 정책관련 조사연구에는 10억 원을 요구했지만 2003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편성이 이처럼 건물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하는 하드웨어 부문에 치중하게 되면서 각 지역의 문예회관이나 ‘문화의 집’과 같이 외형적 형태는 갖췄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역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문화의 집’입니다. 2011년까지 500개소 확충을 목표로 1999년부터 추진되어서 9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10여 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은 갖추었으나 불확실한 재정, 전문성 없는 운영요원, 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2년 문화정책개발원에서 발표한 ‘문화의 집’ 운영활성화방안 연

구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당시에 운영되었던 전국의 96개 ‘문화의 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경우가 15곳인 15%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늘리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예산편성보다 이를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의 집’과 같이 외형적 숫자불리기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을 잘 운영하고 활용할 인력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을 확충만하고 시설의 운영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자원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 인적자원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문광부의 대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예산배정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제3회 장애인영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제가 폐막식 때 직접 참석을 해서 또 장애인들과 같이 영화를 관람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기존의 여성영화제나 인권영화제에서는 여성과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지만 장애인영화제는 장애인을 다룬 영화만을 상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영화제가 ‘소리를 보고 그림을 듣고’ 그런 표어를 내세웠는데 이 표어 그대로 보거나 듣지 못하는 혹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일반인들이 보는 그런 영화를 똑같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특별한 날을 정해서 영화를 감상해야 되는 것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불편함을 배려해 주는 영화관이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등 장애인들의 문화적 접근권 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800개 영화관 중에서 장애인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은 30여 개에 불과하고 이 30여 개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주로 한 기초적인 시설을 갖춘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듯 장애인들의 문화접근권이 전무한 현실에 비춰 봤을 때 2003년도 문광부 전체 예산 1조 1000억 원 중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22억 2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광부 예산의 0.2%밖에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특히 올해로 3회째 맞이하고 있는 장애인영화제의 경우 제가 직접 거기 가서 실무자들에게 확인을 했었는데 전체 1억 30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비용 중에서 문광부가 지원한 것은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훨씬 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3000만 원을 지원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역시 3000만 원, 자체 부담이 6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1500만 원 그것도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적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전체 인구의 3%가 장애인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문화예산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 0.2%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도 문광부 예산 중에서 1%는 장애인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제영화제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부산, 전주, 부천, 광주 및 서울여성영화제 등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으로 총 2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에 10억 원, 부천, 전주, 광주영화제에 각각 5억, 서울여성영화제에 3억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영화산업의 발전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각 국제영화제의 성격과 행사내용에서 제가 보기에는 차별성을 찾아보기 거의 어렵습니다.

여러 곳의 국제영화제 개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예산지원도 그래야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제와 달리 내년 8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5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는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서울국제영화제의 경우에는 만 13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제작한 영화를 출품 또 참여하는 영화제로서 청소년들의 영상창작활동을 격려하고 청소년 문화발전의 토양을

마련할 수 있고 또 해외 청소년들과의 폭넓은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국제영화제와는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문광부에서 전액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李允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盛 委員 李允盛입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련 질의를 하나 드릴 테니까 관련 되는 부서의 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사는 2001년 6월 20일 현대와 금강산관광사업에 동참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서 체결 후보를 만에 관광공사는 금강산지역 내 시설물을 담보로 현대 측에 긴급자금 450억 원을 지급했다. 9월 현재 692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상태다. 그리고 관광공사는 투자자금을 정산하고자 현대 측과 협의해서 2002년 2월 27일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서 금강산 온천장 등 자산실사를 거쳐서 적정 시기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사업 참여에 대한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자산실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최근 끝난 금강산여관은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될 실정이다.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관광공사 사장께서 692억 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는 1달러도 더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관광공사 누구 나오신 분 계십니까?

○委員長 裴基善 관광공사 사장이 아침에 나왔다가 저한테 양해의 말씀을 하신 것은 오후에 관광진흥을 위한 회의가 오사카에서 있어서 잠깐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양해한다고 했는데 가셨습니까?

○李允盛 委員 관련되는 분 안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하실 분 없어요? 1달러도 더 투자하지 않겠다. 제 기억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관광공

사는 아무도 없습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계속하겠습니다.

2001년 7월 16일 현대아산 관계자는 2001년 제6회 관광공사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금강산사업에 대한 애착은 현대나 한국 정부보다도 오히려 북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북측에서 말을 안 듣고 우리가 북측에 양보를 요구할 때 금강산사업 그만 두겠다고 얘기만 하면 북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강산사업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회의록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현금 돈 줄이 바로 금강산관광 대가다 하는 일면을 우리가 이것으로써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당의 李會昌 대통령후보가 지난 10월 18일 특별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략하고 이 부분만 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선언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과제라는 인식하에 남북 간에 교류협력만 하면 평화가 저절로 온다는 햇볕정책에 입각해서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소홀히 취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측으로부터 돈과 물자를 지원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핵개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략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李會昌 대통령후보는 내일인가요? 金大中 대통령과 대통령후보들 간 6자회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민의 불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 및 금강산관광 대가 현금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대통령에게 요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또 4억 달러 정도는 이미 갖고 입산료, 편의시설 이용 등으로 해서 앞으로 4억 달러가 더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강산관광을 하면서 입산료 등 현금대가를 주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방안이 있다면 대충 어떤 것일까 답변해 보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지금 일문일답 하는 것입니까?

○李允盛 委員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금강산관광에 대해서 현금지원 말고 다른 방안이 뭐가 있을지…….

○**李允盛 委員** 그래서 관광은 계속하되 현금지원 말고 다른 대처방안이 무엇이겠느냐?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금강산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체방안을 마련해도 북이 그것을 같이 합의하지 않으면 중단된다든지 또는 다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한 번 언론에 어떤 기고도 있었던 것 같고, 한나라당 어느 의원분이신가, 제가 기억은 정확치 않은데 현금 말고 현물로라든지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방안이 대체가 되려는지 하는 것은 얼른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李允盛 委員**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李允盛 委員** 참모들 가운데 답변을……. 메모가 오는데 한 번 보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이것은 그것에 대한 방안이 아니고 현재 얼마만큼 돈이 지불되었나 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답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李允盛 委員** 얼마 지급됐습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9억 4200만 불 중에서 3억 8500만 불이 이미 현대에서 관광대가로 지급이 됐고 현대와 아산 간의 계약에 의해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 지불로 보고 있습니다.

○**李允盛 委員** 알겠습니다. 적절한 답변을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예산심의가 끝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죽 보니까 공통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 기금운용부서에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서 부족한 전문성 제고의 보완적인 대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번 드

리니까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서면으로 개최가 되는 모양인데 여기 나오신 분 기다리면서 심심하실 테니까 내가 물어 볼게요.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관광진흥개발기금 거기도 서면으로 개최됩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李允盛 委員** 왜요?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관광진흥개발기금 위원회의 위원장이 저희 차관이시고 관계부처 국장이 하는데 연례적인 안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직접 참석보다는 서면으로 합니다.

○**李允盛 委員** 차관이 하기 때문에 평양회담에 가야 되고 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아닙니다.

○**李允盛 委員** 알았습니다.

그다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는 부서 여기도 서면심의 회의를 합니까?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常務理事 成祥宇** 상무이사입니다.

저희는 가급적 실제 회의를 개최하고 용자심의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실제 개최해 가지고 출석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李允盛 委員**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常務理事 成祥宇** 1년에 용자심의 같은 것은 3회를 하는데 2회를 저희들이 실제 참석을 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李允盛 委員** 1회는 서면으로 하시고요?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常務理事 成祥宇** 예, 그렇습니다.

○**李允盛 委員** 문화산업진흥기금은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劉震龍** 서면결의를 할 경우도 있고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모입니다.

○**李允盛 委員** 문화예술진흥기금은요?

○**韓國文化藝術振興院事務總長 李濠培** 사무총장입니다.

기금 자문위원회는 실제로 분기마다 1회씩 연 4회를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李允盛 委員** 청소년육성기금은요?

○**文化觀光部靑少年局長 金斗顯** 청소년국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으로 했습니다.

○李允盛 委員 왜요?

○文化觀光部靑少年局長 金斗顯 아까 관광진흥기금과 마찬가지로 차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관계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 위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李允盛 委員 장관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금을 운용하는데 차관을 위원장으로 내세웁니다. 해 가지고 5개의 큰 기금인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틈이 안 난다 해서 서면 개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보완방법이 무엇인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 기획예산처에서 2001년도 기금운용평가를 했는데 8월 19일에 국무회의에 보고가 된 결과입니다. 교육·문화·외교 9개 부문에 대한 기금평가를 보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9개 중 8등입니다. 부문별은 있습니다. 경영개선 부문, 사업운영 부문, 자산운영 부문이 있거나 8등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6등입니다. 문화산업진흥기금 7등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3등으로 되어 있는데 3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발전이 없다, 현상유지다, 복지부동이다 이것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꼴등입니다. 보완책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제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남한산성 수리·복원에서 발생한 문화재 훼손 문제와 관련해서 시공자가 주무기관인 경기도 그리고 문화재청의 단일한 책임 행정과 관리 감독이 법제상으로 어긋난 행위라고 지적하고 해결책과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청장 알고 계십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예.

○李允盛 委員 그 뒤에 어떤 책임이 물어졌고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석하셨고 어떤 대안을 지금 마련하셨고 그 대안이 2003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요. 반영이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나중에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委員長 裴基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趙培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培淑 委員 趙培淑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부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순수예술 진흥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산업 예산안 중에서 순수문화예술 예산은 2143억 원 정도이고 문화산업 예산은 1892억 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수문화예술 예산이 250억여 원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나 예술계에 계신 분들은 순수예술 분야가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산업 분야 예산은 지난 1997년 112억 300만 원이던 것이 2002년에는 무려 1957억 7300만 원으로 약 17.5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순수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지난 1997년에 1011억 2700만 원에서 2002년에 1919억 원 정도로 약 1.9배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대적인 액수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증가추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순수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부가가치가 높다고 해서 문화산업 분야만 육성한다면 순수예술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순수예술 분야 예산이 부족한 예는 예술의 전당 재정자립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01년도 예술의 전당 재정자립도는 70.1%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사우스뱅크센터나 미국의 케네디센터 등 선진국들의 복합공연장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30~40%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예술의 전당 재정자립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만큼 순수예술을 위한 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2003년도 예술의 전당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56억 5400만 원, 방송발전기금에서 30억 6700만 원 합계 87억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06억 원이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 있는 공연이나 예술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수예술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임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게임시장 규모가 463억 달러이고 작년에는 612억 달러입니다. 게임별로는 아케이드게임이 280억 달러, 비디오게임이 186억 달러입니다.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도 지난 2000년에 8359억 원에서 작년에는 1조 3542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게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1.7%에 불과합니다.

PC게임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시장규모로는 세계 6위권이지만 국내 PC게임 시장은 외국게임 비중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는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소형 게임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초대형 게임이나 올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게임개발업체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3차원 게임 개발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도입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술개발이나 축적, 응용 노력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광부가 과연 이러한 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게임산업 육성 지원 예산이 2002년도 대비해서 30.6% 증액된 17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게임기술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고작 8억 원입니다. 게임 R&D 예산 8억 원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재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일 북한 사회과학원과 일본 고구려회가 공동발굴해서 황해북도 송죽리 고분벽화가 발굴되었지요?

○文化財廳長 盧太燮 예.

○趙培淑 委員 우리들은 사진으로나마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의선·동해선 연

결공사를 하게 되었고 또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되고 있고 지금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계기를 마련했는데 고분발굴사업에 우리는 참여를 못 하고 일본이 참여를 했습니다. 남북한 간에 문화재 교류사업이 그동안 실질적인 것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번 발굴을 통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고구려벽화 등 북한과 중국 내 문화재에 대한 공동발굴 및 조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에 공동문화유산의 탐구를 통해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 화해와 협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구려고분이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지린성에 있는 장군총이라든가 고구려고분 보호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남북이 함께 중국과 협의하는 것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 북한 문화재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밀조사를 하고 또 북한의 무형문화재를 합동으로 공연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한의 문화재 보존 및 교류를 위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풍납토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풍납토성이 현재 일반 주거지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 4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밀 발굴조사를 위해서 그리고 유적의 원형보존을 위해서 어쨌든 이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것을 위한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5000억 원 가량 비용이 드는 것으로 산출해서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청 예산 중에 상당부분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보존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안 된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문화재청 자체가 치밀하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나 재원조달을 위한 홍보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와 관련해서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의하면 매장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발굴을 제한하고 있지만 도로개설과 택지개발 등 불가피한 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매장문화재 보호와 사적재산권의 충돌로 인해서 매장문화재의 파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에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개인의 기본생활과 관련된 공사 때에는 그 발굴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매장문화재 발굴 시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발굴은 어렵고 또 문화재의 파괴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때 일정금액 이상의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또 국고가 지원되는 발굴조사인 만큼 시공업체의 문화재발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李元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元昌 委員 李元昌 위원입니다.

장관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난 주 본위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문광위 소속 위원 그리고 산자위원들이 강원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사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광부 산하에도 많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특히 설계사 선정 문제, 심사위원 선정 문제 그리고 건설 관계 예산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놀라웠던 것은 정선지방에 세워지는 카지노 운영회사에 화장실까지 대리석으로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모두가 다 외국산 수입 대리석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

리나라 대리석은 정선에서 나고 그 우수성은 세계에서 인정되어서 수출까지 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국산 대리석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설계상 이미 정해져 있어서 국산 대리석을 못 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메인카지노가 다시 들어서는데 메인카지노에는 국산 대리석을 얼마나 쓰느냐고 했더니 외국산은 29억 원 그리고 국산 대리석은 1억 원 가량이 설계상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가 어떻게 해서 설립된 회사인데, 정선지방 등 폐광촌에 대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지방에서 나는 대리석을 외면하고 비싼 외국산 대리석을 수입해서 집을 지어야만 하는지,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되었다, 장관께서도 그런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인카지노 건설에서는 국산 대리석이 반은 들어가도록 할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미지근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강원랜드가 그런 설립취지에 맞도록 다시금 강원랜드 측에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중앙국립박물관의 문제도 중앙박물관인데 어떻게 국산 대리석을 안 씁니까? 그리고 지금 부산국악원의 경우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설계회사를 선정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설계회사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비공개로 된다는 거예요. 비공개가 완벽히 지켜지면 그런 대로 정실이 개입되지 않을 텐데 일부 심사위원들의 내용이 특수한 설계회사에만 공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는 심사위원들한테 로비가 들어가서 그 회사가 거의 수주하는, 설계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대로 특수한 설계회사가 선정되고 설계회사는 그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설계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많으니까 장관께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예산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국민들과 함께 느꼈습니다. 국력

신장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지역갈등도 큰 의미에서는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경기가 주는 큰 의미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한 큰 행사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마침 내년에 열리는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일치된 단결,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것을 전국체전에 부여한다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전국체전 예산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지원되고 있는가, 지원을 하면 얼마나 이번 전국체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좀 작은 분야입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주로 즐기는 경기가 게이트볼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게이트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 협회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그분들 말씀이 게이트볼이 노인들이 하는데 겨울에는 야외에서 많이 할 수 없는 경기이고 노인들 건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확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이미 국제사회의 여론을 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정권적 차원을 떠나서 한반도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금강산관광개발 사업에 쓰여진 돈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행여 핵개발에 쓰여졌으리라는 강력한 의혹도 있고 적어도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금강산관광을 일시라도 중단하는 방안은 없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금강산관광사업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장관께서는 아직까지도 금강산관광사업은 민간교류협력사업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 이러저러한 경우 또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밝혔습니다마는 남한의 뭉치돈 달러가 북한에 들어갔다는 것이 해외정보망에 이미 잡혔고 그 달러가 무기구입 등 파키스탄에서 관

련된 기기가 수입되는 등 많이 사용되었다는 정보가 있는 만큼 그래도 이것은 순수하게 관광사업에만 쓰여진 돈이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東采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東采 委員 문화관광부는 지난 9월 말에 문화의 세기,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기본인식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우리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단위로 문화예술 및 향토사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순수민간 차원의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공모제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이 시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요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재원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우리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의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는 2001년에 디지털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콘텐츠 분야에서 내용적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전조사, 기획연구, 창작·유통방법론의 개발을 위한 전문적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내용을 갖춘 영상콘텐츠 내용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상산업 분야의 직접 연구·창작기관으로서 국공립 부설연구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는 기존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연구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영상산업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연구 및 창작활동을 위해 최소한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증가에 힘입어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이 늘어났다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립극장 신축으로 인해 지난 1975년에 매각된 명동소재 구 국립극장을 다시 매입하여 600~700석의 중급 규모의 극장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문화예술계 및 관광업계에서 구 국립극장 되찾기 서명운동 및 청원을 제출하는 등 옛날 국립극장을 살리기 위한 각계각층의 여론이 조성되어 왔습니다. 옛날 국립극장은 근대 문화예술사적으로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차원에서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로서도 역사적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국립극장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문화인프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명동이 상업지역만이 아닌 문화의 거리로 조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총 사업비가 600억 가량 들고 그 중에 건물매입비가 400억 원으로 내년에 당장 구입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200억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화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이는 기존의 문화예술기관과는 달리 접근이 매우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극장운영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문화재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출범 이후 1998년 770억 원이던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금년 15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되었고 전국의 문화유적을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멸실을 방지하여 보존·전승하고 문화

유적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도 960건의 국보, 보물 등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를 보수·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 요구액의 18.8%만을 반영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시·도 신청액은 1554건에 7622억 원으로 현 조정액은 시·도 신청액의 22.3%에 불과한 1700억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시·도 요구액의 25% 수준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궁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 대사관 이전문제 등으로 덕수궁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일제에 의한 훼손·변형된 덕수궁을 원형대로 복원 정비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선양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6개년 동안 2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화전 행각, 함녕전 행각 등을 복원하고 덕홍전 등 6동 320평의 고건물 보수, 지형복구 및 조경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2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를 전액 미반영하였습니다.

청장께 묻습니다.

내년도 완료되는 창덕궁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2004년 덕수궁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발굴 및 고증조사, 복원실시설계 등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능원은 그 자체가 문화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간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는 주요한 관광코스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능원을 찾으면 예전과는 달리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열악한 예산과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및 일용직 직원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 오는 일요일에도 능원 보수정비를 위해 땀 흘리는 직원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듯 배수로는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설치하였고 아직도 관람객들의 휴식공간은 아주 많이 부족한 실정였습니다.

청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능원정비사업 중에 관람객들의 관람로는 시멘트 포장인 아닌 지금의 흙과 자갈 상태로 놓아두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산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해 도난경보기 설치의 필요성을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도 또한 여기서 다시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처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 KBS 인가 MBC 보도에서 특히 사찰문화재 등이 지난번의 호우피해로 많이 훼손된 것이 있었는데 송광사의 탱화 그런 것이 보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셨습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이번에 비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방염제 도포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과다 도포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2000년도만 칠한 것이 그렇습니다. 1999년도, 2001년도 다 이상이 없는데 2000년도가 과다 도포되었다는 그러한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습기가 많이 차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다시 약품을 기관에 의뢰해서 점검할 계획이고 하여튼 제일 문제는 유일하게 과기원에서 기술 이전을 한 독점업체이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염제 도포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해 나가는 것이 현재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東采 委員** 특히 아주 유명한 사찰에서도 지난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몇 차례 보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文化財廳長 盧太燮** 사찰관계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조치를 다했기 때문에 바로 전문적인 지도와 기술자문을 통해서 빨리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鄭東采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榮均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均 委員** 질의에 앞서서 화면 약 1분만 보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시22분 비디오상영개시)

(15시24분 비디오상영종료)

보신 분도 있겠습니까마는 보고 느낀 것이 재원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보다는 당국의 무관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예술인들의 생가를 보존하는 것은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뿐만 아니라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훌륭한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러한 예술인들과 작가들의 집이나 생가에 대해서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도 반영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 문화 예술인들을 좀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노벨문학상 같은 것도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金成鎬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영화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상영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전주영화제, 여성영화제 그리고 광주에서도 올해부터는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제에는 올해 3억에서 10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4회를 맞이하는 청소년영화제에는 국고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청소년영화제에 대한 투자가 곧바로 한국영화 미래에 대한 투자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영화제와 같은 행사는 여러 영화제 중에서도 오히려 문화부가 가장 앞장서서 지원을 해 주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아까 尹鐵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 컨벤션센터 마무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공사비 1806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것은 1463억 원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80억을 정부에서 보조를 안해 가지고 2년씩, 3년씩 지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

록 해서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훌륭한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너무 투자에 인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원활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沈載權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權 委員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지방문화산업 지원과 지역문화활동 지원 그 내역을 부탁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오마이뉴스’ 보도, 한나라당 朴柱千 의원이 한국일보 성향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모습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신문에 잘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주, 편집인 등의 성향 등을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응하며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어느 당의 문건이다 이 점을 얘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작성자가 누구건 간에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우리 언론탄압의 문건이요 또 언론자유 침해의 문건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더욱이 2000년도 12월 그때도 ‘일부 당원의 습작이다.’라고 치부됐었습니다마는 우호적, 적대적 언론인을 나누고 여기에 대해서 적대적 언론의 비리를 축적해야 된다는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언론자유 침해의 내용이 담긴 그런 문건이 문제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불과 한 2개월 전에 지난 8월 하순에는 흔히 신보도지침으로 불리던 방송사들에 대한 보도규제 내용을 담은 이런 문건이 공식으로 발송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언론 주무부서로서 작성자가 누구든 간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일보에 관한 문건이 우리의 언론자유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고 따라서 주무부서로서 우리 정부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 중단된 지 4년째 방치되고 있는 예술인회관 올해 50억 지원이 책정됐었습니다마는 예충의 자체 재원확보를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불용예산으로 넘어 가고 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이제 이 시점에서는 예충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또 기본방침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장애인영화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도 똑같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문화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장애인들도 그런 문화향수권을 갖도록 제도적으로 배려돼야 한다고 보는데 소극장,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 또는 전용좌석 등이 없는 것으로 또는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시설에도 역시 그런 시설들이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장애우문화향유1%확보운동 이런 것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기부행위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흡한 것으로 보면서 보다 본질적인 정책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국정감사 때 존경하는 鄭範九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잘 제기를 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E6비자 발급과 관련해서 최근 필리핀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대와 같은 이런 아픔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낯을 듣기 어려울 만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鄭範九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시겠지만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게임등급분류와 관련해서 ‘리니지게임 18세 이용가 판정’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게임개발업체인 엔씨소프트 측의 이야기로 보자면 미국에서는 ‘13세 이상 이용가’ 이런 판정을 받고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용을 밝혀 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게임산업육성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서울 국제청소년영화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좀 도와 주십시오.’ 이런 문건을 본 위원도 받았습니다. 역시 그 내용을 살펴보니 충분히 일정한 정도의 지원은 해 줄 가치가 있는 영화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점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부산이나 전주나 부천 등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와는 달리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영화제에서는 어디까지나 청소년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더 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당시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제한상영등급을 위해서도 일반영화상영관이 일정한 제한상영등급을 받은 작품도 상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광부의 정책적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덕수궁 복원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본 위원은 이 예산검토서를 보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들었던 느낌입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눈치보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불필요하게 몸을 사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고 건설교통부도 말할 나위 없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수호해야 되는 문화재청마저도 그런 눈치보기에 미국의 입장을 살피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보면서 왜 그런 20억 정도의 작은 규모의 복원을 위한 예비조사 성격의 예산마저도 삭감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 선사주거지 그야말로 약 6000년 전에 형성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을 대표하는 선사주거지입니다. 현재만 해도 약 800만 평방미터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도 암사지역 선사주거지 복원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올해도 보

니까 일정한 보수정비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인 암사동 선사유적지 복원정비 및 선사문화교육장 조성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문화의 장구한 역사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문화체험공간으로도 훌륭한 기능을 담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은 총액예산에서 계상됩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그렇습니다.

○沈載權 委員 어쨌든 간에 문화재청이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명예보유자제도가 잘 실시되고 있지 않고 실시되지 않는 핵심적 사안으로 의료급여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장님, 그렇지요?

○文化財廳長 盧太燮 예, 그렇습니다.

○沈載權 委員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었습니다마는 5억 4000만원 책정되었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고 내년에도 그만한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료급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 이 부분에 명예보유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재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토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경당연립이라든가 미래마을 보상문제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어차피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초기 백제시대의 유적지로 밝혀지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그런 보상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 같고 그야말로 수조 원의 보상비용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충분히 연차적인 보상사업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연차적인 사업준비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이 부분을 새롭게 다시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興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興吉 委員 오전 회의에서 우리 한나라당의 동료 李元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대아산의 정몽헌 회장과 김윤규 사장이 사실상 지난 3년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증인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참을 해 왔습니다. 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산업은행의 4000억 용자관계 또 금강산관광사업의 문제점, 북한의 핵개발 이것이 전부 한데 얽혀져 있어 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지나 갈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관광의 주무부로서 사실상 관광사업을 지휘·감독할 입장에 있고 장관으로서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금강산관광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는 계속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러한 설명이나 그러한 얘기가 국민들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제에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현대아산의 김윤규 사장이 몰래 귀국을 했고 또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데 조기 귀국을 종용하고 김윤규 사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를 내려서 이 당사자들을 전부 장관이 불러서 본격적으로 추궁할 것은 추궁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만약에 행정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스스로 먼저 이런 조치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관계장관회의를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소집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서 매듭을 완전히 지어 주실 것을 촉구를 하고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범안심의가 또 한번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겠지만 범안심의 상임위원회 때 확실한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이 1.15%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인프라가 아직도 취약한 상태이고 문화예산의 55%가

문화인프라에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도 부족한데 금년 대비 0.5%에 해당하는 6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 문예회관 건립지원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지원기준이 정액제로 되어 있어서 회관의 크기라든가 도시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무조건 20억 원씩 국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문화예술회관의 경우를 보면 총사업비가 870억인 데 비해 국고는 20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체의 2.3%밖에 안 되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대개 국고지원비율이 20%를 훨씬 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장관께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이월액이 너무 과다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잘 되지 않아 보조기관이 계속 많은 부분의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집행액 294억 3000만 원 가운데 87.2%에 해당하는 256억 6300만 원을 이월했으며 2001년도에는 전체 예산집행액 431억 1900만 원의 49.6%에 해당하는 213억 9700만 원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기관이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 이상 이월시키고 있는 것은 당초 우려했던 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잘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예산이 잘 쓰여지지 못할 바에야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재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특히 내년도에 동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다시 재검토해서 책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에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운영지원비 증액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올림픽 다음으로 많은 170여 개국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서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위하여 운영비 추가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추계가 2003년도 총 소요액은 942억인 데 비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액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고와 기금을 합해 모두 59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위원회에서는 348억 원 정도가 추가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달해 주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예산과는 별도로 수익사업의 하나인 체육복권사업 배정금을 100억 원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기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니다.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모르기는 몰라도 발매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100억 지원을 장관이 보장하실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부산아시안게임 때에도 누차 국회에서 지적하고 현지에까지 가서 정부지원을 촉구한 결과 간신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전례에 비추어 지금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서둘러서 예산확보라든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사업은 물량증가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건축공정이 14개월이나 연장되고 총 사업비가 무려 802억 원이 증액되는 등 당초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2002년 9월 현재 공정률은 44.5%에 불과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446억 원을 포함해서 2002년도 예산액이 예산현액 1191억 원 중 6월 말 현재 3.2%에 해당하는 28억 1600만 원밖에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헬기장 이전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427억 4200만 원의 예산을 다 준다고 해도 사실상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의 일부를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範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範九 委員 국정감사에 이어서 또 예·결산 처리를 위해서 죽 애써 오신 장관과 청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두 가지 정책적으로 다시 확인할 질의가 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沈載權 위원께서 다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E6비자 추천업무 이 문제는 결국 국제문제로 까지 비화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 필리핀대사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이제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국제적인 스캔들 문제로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성매매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금 영등위가 처리하고 있는데 인력으로도 미흡하고 사후관리를 전혀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등위가 말아서 하는 한 인력보강이나 기구보강을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문광부가 직접 이 업무를 맡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부의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새해 예산에 5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국비가 총 552억 원이 투자되기로 되어 있고 특히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기반시설 조성비 등 사업초기에 투입되어야 할 돈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마는 이미 지난해에도 50억이 계획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야 하고 또 지난해에 예정되었던 50억이 전혀 책정 안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올해 국비예산이 최소한 100억 정도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해 문화관광부 예산편성의 특성은 일반 국고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기금으로 변환하거나 또는 기금으로 되었던 것을 국고예산으로 변환시킨 경우가 상당수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생략하더라도 그렇게 할 경우에 국고예산과 기금예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 기금의 경우에는 거의 목적성 기금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동일사업이 기금과 국고예산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면 굳이 기금과 국고예산을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편의적으로 기금을 부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외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수백억 원의 돈이 기금과 국고예산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데도 막상 이런 문제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연구보고서나 타당성검토보고서 하나 없습니다. 다시한 번 국고예산과 기금예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리니지게임 관련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沈載權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문화관광부가 관련 예산안 내놓은 것을 보면 내년도에 순수한 게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금년 대비 41억 2000만 원, 60%의 예산을 순증시키고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세계 게임산업은 지속적으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중에서도 특히 모바일게임과 온라인게임 신장률은 폭발적입니다. 또 문광부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게임산업육성 추진방향 및 과제라는 자료를 보면 우수게임의 조기발굴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국산게임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게임강국 코리아의 위상 제고, 게임산업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제고 등등의 방향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현실에서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보면 문화관광부 및 영등위가 과연 앞서 말한 게임산업육성 추진방향 및 과제를 추진해 갈 만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우려가 됩니다.

지난 17일 열린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가 엔씨소프트에서 지난 9월 30일 12세이용가를 희망등급으로 등급분류 신청한 리니지에 대해서 18세이용가 등급 결정을 한 것은 아마 도하 각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리니지게임 자체는 2년여의 개발기간과 10개월간의 시범서비스를 거쳐서 1998년 9월에 이미 상용화된 온라인게임입니다. 현재 유효사용자가 700

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에 대만이 300만 명이고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200만 명 그러니까 500만 명의 해외수요자를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대표적인 게임코리아 강국 이미지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리니지게임은 현재 일본, 대만, 중국에서는 별도 심의가 필요 없는 자율심의로 전체 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단법인인 ESRBi는 13세 이상 이용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이 게임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막상 이 게임산업의 개발지인 한국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각종 규제로 게임 개발자들의 창업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라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영등위에서 12세이용가로 분류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게임의 경우를 보면 이미 초등학교 사이에 인기 1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온라인게임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전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e-메일을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조잡스럽고 음란한 각종 스팸메일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또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게임물사전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이런 사정이 개선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시장을 통해서 양성적으로 온라인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제작자만 이런 영등위의 불합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전심의를 통한 제재를 통해서 오히려 경쟁력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청소년보호에 목적이 있을 뿐 사전심의를 통한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음비계법 39조, 42조, 50조, 53조를 보면 관련법률을 위반할 때는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게임물 제작자에게는 등급분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강한 통제와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등위가 내놓고 있는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의 기본정신을 보면 작품의 창의성·자율성을 존중하고 사회통념을 존중하여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

는 과연 이번 영등위의 리니지게임 관련 결정이 이런 정신이 반영된 결과였는가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고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없도록 우리가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여기에 우리의 전근대적인 관료적 사고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청과 관련해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 대한 특별장려금 예산지원이 고무줄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요지의 질의인데 시간관계상 이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李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協 委員 저는 실질적인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전주에서 있게 되는데 체전 준비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합니다.

사격장, 실내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요트경기장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이 지금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예산을 더 증액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특히 실내수영장 건립에 16억 원을 더 보태야 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소위에서도 참고해 주시고 문화관광부에서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문화에 대한 소외를 극복하려고 문화관광부가 노력하는 것을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고르게 문화, 체육, 예술 모든 부문에 정부시책의 혜택이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이라든지 용담호 주변 관광지개발에 모자라는 예산 4억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군산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차이나타운 조성에도 2억만 더 보태 달라는 요청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여러 번 거듭되었습니다. 1999년 기준으로 볼 때 문예·문화·관광 분야까지는 다 증가되는 추세인데 체육하고 청소년 분야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분야는 1999년에 344억 원에서 257억 원으로 25.3%가 감소되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

할 여지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에 문광부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한 16억 신청이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입장에서 청소년 문제에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요청했던 청소년 인권참여 아카데미 5000만 원, 주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서 1억 이런 정도는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업의 목적을 읽어 볼 때 이것은 시의적절하고 문화관광부가 앞장서 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 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월드컵 이후에 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도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인 12억밖에 반영이 안되고 그것도 전문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해서 3명을 양성하는 것하고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도입·시행으로 10억 예산이 책정되었을 뿐입니다.

월드컵 이후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 차원에서 고조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스포츠산업에 손 대면 우리 국가의 중요한 부를 창출할 수 있겠다고 해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지역에서도 섬유가 중심인 도시인데 스포츠섬유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스포츠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제기되는 움직임들을 어떻게 문화관광부가 잘 수렴해서 스포츠강국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에 있어서도 출초국이 되어서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예산에도 반영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상품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인사동거리를 다녀 봐도 그렇고 관광지를 다녀 봐도 외국인들이나 누가 뭐하나 기념으로 사려고 그래도 제대로 관광상품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책정되어 있는 지역공방 5억짜리 두 개는 어디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예진흥기금에 있어서 예총과 민예총의 지원과 관련해서 경상운영비를 기금에서 지

급하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사업을 권장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종무국 산하 예산을 볼 때 각 종교에 대한 배려가 골고루 또 많은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500년 동안 이씨 조선왕조에서 인본주의에 따른 예의와 엄치를 기르고 정신적인 국가의 토대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던 유교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소홀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각목명세서를 대충 보았더니 기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전국 향교 253개에 대해서 예절교육이나 유교전승 같은 것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한 향교당 100만 원씩, 아마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는 너무 형평에 맞지 않고 유교가 차지하는 국가사회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보호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업을 실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의 문화재 취급을 위한 교육연수 예산들은 얼마나 마련하고 있는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의 전문인력 보강도 이번 예산에 눈에 띄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민간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이들에 대한 예산적 뒷받침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홍보란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금 90만 원씩 주고 있지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전승조교에 대한 지원이 1인당 35만 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전승조교들이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아주 형편없어서 시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申榮均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 인물들, 우리 익산지역만 해도 채만식 선생이 계시고 또 거문고의 대가였다는 신쾌동 선생이 계신데 똑같은 형평으로 유적에 대한 보호를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회)

○委員長 裴基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사항을 요약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게시지 않는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게시지 않은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李元昌 위원님께서 강원랜드 메인 카지노 건립에 국산 대리석을 사용해 보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강원랜드 메인 카지노 건립 공사는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부가 강원랜드의 카지노와 관련한 정책은 하지만 카지노 운영과 인사 이런 등등 부분은 산업자원부가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장관인 저로서도 같이 문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에 전달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李元昌 委員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불합리한 설계가 주어지는 원인이 설계경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완전 비공개가 되든가 아니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부 산하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서 어떤 설계가 필요할 때에는 그런 것이 주어져야 되겠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부터도 국립중앙박물관에 국산 돌이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계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사적인 건물이고 박

물관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금 재고가 있었으면 합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李元昌 위원님 그리고 후에 李協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금년도 국제대회 개최가 큰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 전국체전도 이러한 국민의 에너지가 상승하는 장으로 활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전국체전의 예산과 지원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대회는 2003년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 40개 경기종목을 전주 등 12개 시·군의 51개 경기장에서 약 2만 5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전북은 1991년에 제72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정부는 체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2년까지 신설경기장 시설사업비로 국고 10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국고 예산에 사격장, 수영장 등 시설비 74억 원과 대회운영비 35억 원 등 총 109억 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수영장 시설비 등 약 20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바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전북체전은 8월에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개월 후에 개최되기 때문에 양 대회 개최기간을 국민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 청소년과 국민을 연결하는 응원 방안을 연구해서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저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元昌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국체전이 지방체전으로 전략했거든요. 명실상부한 전국체전이 되려면 선수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 주민들도 초청될 수가 있고 식전행사도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전국체전이 한 번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李元昌 위원님께서 노인층을 위한 실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의 필요성과 내년도 게이트볼 경기장 건설 예산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 경기장 확충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회가 노령화됨에 따라서 게이트볼은 노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정부도 16개 시·도별 1개소 건립을 목표로 1998년부터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용게이트볼 경기장 2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의 건립예산 10억 원을 요청했으나 4억 3600만 원이 확보되어 1개소 건설비용에도 조금 모자라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게이트볼 경기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1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元昌 委員** 본 위원도 한 번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15억도 부족하다는 그러한 얘기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얼마가 필요한가 하면 30억 원을 얘기하는데 지금 장관의 말씀 들으니까 10억 자체도 어렵다고 하니 관련 상임위나 또는 예결위에서 저도 한 번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청은 일단 그런 수준으로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李 위원님께서 대북지원금의 북한 핵개발비용 사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강산관광사업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고 금강산관광사업을 순수한 민간교류사업으로 보는지 금강산관광 대가가 북한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아는지 하는 것을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한 핵문제는 한·미·일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다고 하는 원칙 속에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통령과 각 대통령후보 6자회담이라고 이렇게 말해 지는데 내일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염려들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것은 남북장관급회담 그리고 내일의 6자회담 그리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함께 밝혀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사업은 원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 부가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허가는 통일부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단이나 계속의 문제는 통일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와 염려들을 장관급 회담에서 돌아오시면 통일부장관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강산관광 대가가 북한의 어떤 다른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저로서는 아직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국회 차원이거나 정부 차원이거나 또 그 외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元昌 委員 그렇다면 금강산관광 대가로 북으로 간 달러의 용처가 확실히 밝혀진다, 군수문제 특히 북핵을 실험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금강산관광사업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허가를 통일부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못한다,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李元昌 委員 그러니까 문광부도 어차피 관광공사가…….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다만 그것은 문광부 범위를 넘어서서 이미 그런 문제가…….

○李元昌 委員 그러니까 금강산관광 대가로 넘어간 달러가 북핵에 기여했다 이것이 밝혀지면 관광사업은 멈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李元昌 委員 그렇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순수한 민간교류사업 차원은 이미 넘어섰지요? 통일부가 허가하고 또는 그러한 달러가 넘어갔으니까 전에 우리 장관께서는 아직도 금강산관광사업은 민간교류협력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미 국내외적으로 밝혀졌어요. 순수한 민간교류 차원은 이미 넘어섰다 그것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그것은 아직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관광사업을 현대아산이 정부에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일부가 승인해 줬죠.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사업으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어떤 배려를 해 줬는지 하는 것은 정리가 돼 봐야 알겠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부로서는 관광공사가 최근에 금강산관광에 관한 어려움이 현대아산에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그것으로서 투자적 의미에서 같이 참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적이냐, 정부사업이냐고 할 때는…….

○李元昌 委員 정부사업이 아니라 순수한 민간교류사업만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관광공사가 이미 개입이 되고 아산에서도 금강산의 모든 관광시설 구입까지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운영은 맡겨놓고 직접 운영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끝까지 장관이 고집을 부리신다면 좋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변경할 수 없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도 金聖在 문화관광부장관은 금강산관광사업이 민간교류협력사업이냐?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공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이기는 하지만 민간교류사업이냐, 정부사업이냐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민간교류사업 아닙니까?

○李元昌 委員 그러니까 내가 말 하나를 달았어요. 순수한 민간교류사업이냐?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순수와 그것의 차이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사업 아니면 민간사업 둘 중의 하나지요.

○李元昌 委員 예를 들어 정부가 도와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순수라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여기서 같이 논쟁을 할 생각은 없어요.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李 위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李元昌 委員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소피스트적인 궤변으로 들린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순수한 민간교류사업이라고 한다면 전혀 개인회사가 별이는 것이지만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가 조금이라도 도와 줬다면 순수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순수하다고 주장하실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순수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단체에도 많이 지원하고

여러 가지 체육, 청소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들 거의 다 지원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순수한 민간활동이 아니다 이것은 다 정부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李元昌 委員 일단은 국내기업이 아니고 국내 행사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적으로 삼고 있고 문제는 38선이 그어져 있고 거기를 넘어가려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내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을 민간사업이 한다고 해서 순수한 민간사업이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대입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委員長 裴基善 李 위원님, 그 논쟁은 지난번에도 한 번 하셨는데…….

○李元昌 委員 답변이 나올 때가 됐어요. 어떻게 답변하느냐 그것만 남았어요.

○沈載權 委員 장관님 답변을 존중해 주시지요.

○李元昌 委員 존중할 테니까 한 말씀 하시라고요.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저는 민간교류사업이라고 봅니다.

○李元昌 委員 순수는 붙이고 싶지는 않고…….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李元昌 委員 됐어요.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답변 중에 金秉浩 위원님께서 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秉浩 위원님께서 순수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지 않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3년 문화예산 1조 2815억 원의 분야별 편성 내역은 문화예술 분야가 5285억 원으로 41.2%, 문화산업이 1893억 원으로 14.8%, 관광 분야가 2304억 원으로 18.0%, 문화재 분야가 3333억 원 26.0%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 문화예산의 부문별 증가내역을 보면 문예진흥이 구 명동 국립극장 매입과 유물구입비 등 217억, 5.4%가 증가했고 문화재 부문도 339억 원, 11.3% 대폭 증액됐는데 관광 부문은 5.3%, 문화산업은 마이너스 6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예산이 문화관광부 예산 전체 액수의 총액이 1조 남짓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계속

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1920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2143억 원으로 22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수문화예술의 진흥 없이는 문화산업도 여타의 여러 가지 문화정책이나 관련된 분야들도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金秉浩 위원님께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예산 지원규모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는 행사내용뿐 아니라 예산운영 등 대회관리운영방식에도 성공적인 국제영화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과 영화산업진흥에 기여하며 아시아의 대표 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다른 영화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억이 그렇게 많다고 본다면 전체 부산국제영화제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관광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金秉浩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국립부산국악원 건립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사유지 매입비에 대한 국고 반영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추가 소요부지가 962평으로 매입비 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저희 부로서는 이것을 매입해서 제대로 국립부산국악원이 건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부산국악원의 건립에 관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부에 처음에 4억 원을 건의할 당시 2001년도에 부지확보는 부산시에서 하고 정부에서는 건물건립과 운영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지만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런 원칙 때문에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매입비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양 숙박단지 예산 50억이 확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래관광객의 80%가 방문하는 수도권외의 관광숙박시설은 현재도 3000여실이 부족하고 이러한 추세라면 2010년에는 약 1만 7000실이 부족하게 돼서 관광객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처와 저희 문화관광부와의 근본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부는 이런 관광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주요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선행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기획예산처는 이게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정부예산을 반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면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100억 요구했지만 여전히 50억 원 정도밖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沈載權 위원님께서 모 정당의 언론관련 문건들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당의 언론관련 문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번 국정감사 때나 그 전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시다. 다마스 언론자유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沈載權 위원님께서 예충의 자체 재원조달 부진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예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정부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술인회관은 그동안 국고 등 총 170억 원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한 예충부담 재원 약 26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1999년 6월부터 공사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충은 10월 초순부터 시공업체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

어서 이번 달 말이면 새로운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11월 초순이면 공사재개를 위한 건립계획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충의 새로운 건립계획이 제출되면 우리 부는 예충 및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금년도에 배정된 50억을 집행하고 공사가 재개되어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沈載權 委員 그러면 10월 중으로 다시 시공자 선정 계획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30개 업체가 신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沈載權 委員 그러면 50억이 불용액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그렇습니다.

○沈載權 委員 국고지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안 잡혀 있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沈載權 委員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척되어서 올해 예산도 쓰이게 될 때 내년도에 계상 안 된 것을 다시 계상되도록 만회할 길은 없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원래 5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이 재개되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載權 委員 제 말씀은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지원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어려움을 맞지는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진행되는 것을 봐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그다음에 沈 위원님께서 장애인 예산배정과 관련하여 장애인영화제 개최 등 장애인을 위해서 문화부 예산 중에 1%를 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金成鎬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 장애인스포츠 활성화 기반구축 등과 아울러서 문화시설 관람료 50% 할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점자규정 제정고시,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용 전자국어사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점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복지를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편의시설에 관한 것은 이미 1998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이 발효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된 이후의 건물에 대해서는 모두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고 그 법 시행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건물주에 대해서 고발하게 되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에 관한 직접적인 것은 저희부의 관할이 아닙니다. 저희와 관계되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이 소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載權 委員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내년에 개선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획기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문화향유를 위한 제반조치들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장애인 올림픽이 열립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부산에서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있습니다.

○沈載權 委員 지금 우리 장관께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1998년부터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뉴스에 따르면 경기장시설 자체가 장애인들의 경기인데 그 경기장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경기를 위한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감시감독 기능이 문화관광부 체육업무 소관 아니겠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건축설계 허가는 시·도 관할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설계도에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沈載權 委員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났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그러니까 시·도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고발하게 되면 당연히 법적 제재가 가해지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장애인 복지정책 관계는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설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어렵게 노력해서 법을 만들어 놓았어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시·도에서 허가할 때 제대로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바로 얼마 전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산자부가 점검을 해 보니까 지하철의 장애인 리프트가 전체 160개 가까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육십 몇 개밖에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 소관사항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載權 委員 어쨌든 적어도 문화관광부 소관 업무에 한해서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이 이번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나운서 멘트따나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어떻게 장애인들의 경기를 위한 경기장을 선수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다음은 沈載權 위원님과 鄭範九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는데 E6비자 관련 추진 업무가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우리 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시에 이미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로서는 대책을 함께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E6비자 업무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최근 미군기지촌 주변업소의 외국인 여성인신 매매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검·경찰청 등 국무조정실과 여성부에서 함께 수립해서 수행 중인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참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22일에 개최할 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범정부적 차원의 회의 등을 통해서



외국인 인권문제 근절을 위한 유관부처 간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 체계 협의 그리고 사전·사후적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영등위의 관광업소 공연추천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는 민간기구로 일단 이양된 업무를 다시 정부부처에서 맡는 방안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어느 기관 또는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로서도 이것의 심각성을 알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고 조속히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權 委員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는 영등위에서 추천하게 되면 추천사실을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안으로 자료에 보니까 9월부터 시행령이 실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영상물등급위원회 내의 등급심사소위원회를 좀 더 강화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개선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 추가해서 장관께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계속 맡는 게 옳은지는 더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비자발급 자체에 있어서도 꼭 제 의견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고급예술비자와 흥행비자로 나누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안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외국연예인 공연추천사업자 등록요건을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책임 있는 공연추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잘 알겠습니다.

○鄭範九 委員 E6비자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광부가 이 문제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특수관광업협회라는 것을 문광부가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E6비자 추천을 받은 업소들 중에 특수관광업협회 소속

업소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 협회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그 혐의로 일단 구속이 되었다가 지금 나온 것이고요.

문화관광부로서는 총론적으로 특수관광업협회에 대해서 보다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는 문제가 되었던 특수관광업협회 소속 업소들을 E6비자 추천 대상에서 일차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은 관광국장님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관광국장입니다.

외국인 유흥전문음식점 이른바 특수유흥음식점에는 공연을 제대로 하는 업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연무대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鄭範九 委員 지금 내가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수관광업협회 소속 업소들이 E6비자 발급받은 연예인들을 고용해서 매춘을 강요한 것으로 형사구속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지적한 필리핀 여성을 감금했던 데도 바로 특수관광업협회 소속 업소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광부가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權慶相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났을 때 저희 직원이 직접 특수유흥음식점과 동두천 지역을 방문해서 점검을 했고 그런 업체들은 지금 현재 휴업 내지 폐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윤락행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특수유흥음식점은 E6 공연비자 등이 강력하게 제재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유흥음식점 중에서도 공연을 제대로 하는 유흥음식점은 공연시설기준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다음에 沈載權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鄭範九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영등위 리니지에 대한 18세이용가 등급분류와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게임산업 육성과 연계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번 등급분류 과정에서 청소년보호와 문화산업진흥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15세이용가 또는 18세이용가

를 두고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각한 논의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18세이용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리니지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미국에서 13세 이상 등급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심의기관 그리고 심의기준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는 온라인게임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게임중독, 아이템에 대한 현금거래 등 국내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등 우리나라와 미국의 게임문화 차이를 확실히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본, 대만, 중국의 경우에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례를 참조해 심의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리니지에 대한 등급분류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고 있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다 찬성을 하고 있고 네티즌 중 62%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성인등급 분류를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에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중독 현상이 아주 심하고 특히 아이템에 따라서 현금거래가 몇 천만 원씩 이루어지고 해서 우리나라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폭력문화 수준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이 정도의 등급판정은 적정한 것이 아닌가, 장관 개인으로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리니지에 대해서는 재심에 대한 의견을 낸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게임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청소년보호를 위한 도덕적 측면과 함께 갈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權 委員 저로서는 영등위의 판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보호와 더불어서 게임산업의 발전 또한 함께 기해지도록 문화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PC게임, 모바일 분야, 온라인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강세라고 합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케이드게임과 비디오게임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다, 그런데 세계적인 문화산업 내에서의 게임분야를 놓고 볼 때 지금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에 그 진흥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세로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방침을 갖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말씀하신 대로 아케이드게임이라든지 비디오게임이 온라인게임 분야에 비해서 뒤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더욱 적극 육성해야 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고 하여튼 이번에 리니지에 대한 여론적 반응이 순간적으로는 게임산업에 위축이 오지 않을까 염려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게임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산업의 육성·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저희 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鄭範九 委員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께서 청소년보호라는 가치와 국제경쟁력을 갖는 게임산업 육성이라는 가치 사이에 충돌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논의를 더 하시겠다니까 그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리니지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기하려고 했던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원래 영등위에서 등급을 매길 때는 학부모들에게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물은 18세 이상이 보니까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감독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이것을 한 것인데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타크래프트게임이 12세이상가로 되어 있지만 웬만큼 컴퓨터를 다루는 초등학생 아이들은 다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미 스팸메일의 홍수가 되어 있는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게임을 사전심의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18세가로 등급을 매기지만 현실적인 실행강제력이 있는가 이 문제를 같이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실제로 영등위가 18세가라고 했지만 요

구하는 효과, 18세 미만 아이들을 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현실로 놓고 볼 때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준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온라인게임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경쟁을 하는데 우리 업체들에게만 족쇄를 채우고 뛰도록 하는 게 아닌가 제 질의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광부나 관련업체들이 논의하실 때 청소년보호라고 하는 취지를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 적합한 논의들을 같이 해 주시면, 아까 저도 지적했던 것처럼 한 쪽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60%씩이나 증액시키면서 다른 쪽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되는, 게임업체 창발성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된다면 정책의 선후가 안 맞는다고 봐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장관님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沈載權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金成鎬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고 申榮均 위원님은 안 계신데, 국제영화제 지원이 중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과 함께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문화관광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영화제라고 해서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전주영화제, 광주영화제가 있는데 국제영화제가 각 지역에 있다고 해서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일본이나 외국에도 국제영화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십 개 또는 몇백 개까지 지역마다 국제영화제를 합니다. 그 중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영화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각 지역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그런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 이것은 일반 상영관에서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또 영화산업진흥을 위해서도 각국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영화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부에 예산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국고예산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청소년국제영화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沈載權 委員 신청을 안 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그렇습니다. 우리 부에 지원신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沈載權 委員 문화관광위원들이 대체로 이것을 받은 것 같은데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영화제는 만 13세에서부터 24세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가지고 하는 영화제라고 되어 있어서 참 바람직한데 왜 빠졌을까 의아했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제가 축사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요청은 없었습니다.

○沈載權 委員 저희도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문광부 담당부서에서도 한번 알아 보시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다음 沈載權 위원님께서 서울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沈載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의 경우에 VIP 영업장을 폐쇄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저도 좀 더 연구하고 싶으니까 이 두 안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와 더불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한상영관 부재로 인한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불가능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또한 沈載權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도 제한상영관이 설치되지 않아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할 수 없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한상영 영화관을 건립하고 운영하겠다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제한상영관 부재로 인한 영화상영 불가능 문제는 장기적으로 제한상영가 영화가 수입과 제작을 통해서 다수 확보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문제가 계속될

경우에는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영화진흥법령 개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金成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의 집과 같이 문화기반시설의 외형적 숫자를 불리기 보다는 현재 시설들을 잘 운영하고 활용할 인력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金成鎬 委員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문화의 집 운영실태 부분도 같이 자료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成鎬 委員 나머지 부분은 아까 같이 답변을 다 하신 것이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이제 李協 위원님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李協 위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용담호 관광개발 및 군산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의 추가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요구한 2억 원을 전액…….

○李協 委員 장관님, 소위원들한테 부탁한 것이 있을 테니까 답변은 일일이 안 하셔도…….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습니까?

○李協 委員 다른 것은 답변을 해 주시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청소년 예산부족문제 그것은 답변드릴까요?

○李協 委員 예.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청소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16억 원과 청소년단체협의회 사업비 1억 5000만 원 반영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현재 한 해에 7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말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런 사업들이 또 내년도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청소년기금들이 사업에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융통성들도 있어야 되겠다 제가 장관으로 일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저

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協 委員 청소년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금 같은 것을 활용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기금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가 아니고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내년도에 청소년기금의 어떤 활용을 통해서라도 이런 필요한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李協 委員 청소년문제를 청소년들에게 많이 참여의 문을 열어서 역할을 주자 하는 것이 새로운 청소년운동의 방향이라고 할까 그런데 5000만 원 청소년인권참여아카데미 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5일제 등을 비롯한 가족 여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주말 청소년프로그램 개발·보급하는 것도 시의에 맞고 시급한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인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다음에 李協 위원님께서 정부가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2003년도 예산은 전년도 수준인 12억 원만을 편성한 이유와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아주 적절한 지적과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우리가 월드컵을 통해서 또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그전에 88올림픽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스포츠강국이 되고 국제스포츠를 유치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기획마케팅의 노하우도 많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체육산업도 발전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 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스포츠산업을 보다 과학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미 스포츠용품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에 5억 원을 들여서 스포츠용품인증제 도입기반을 마련했고 금년도에도 12억 원으로 스포츠용품 인증사업제도와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내년에 45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기획예산처의 심의과정에서 12억 원만 반영이 되어서 사실은 20억 원 현재 반영된 예산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산업 그리고 스포츠산업의 과학화 이런 정책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역시 부탁드립니다.

○李協 委員 정부보다도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이윤추구 동기나 사업의 새로운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민간인들이 더 발 빠를 수도 있다고요. 또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지역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특히 이런 스포츠산업, 새로운 기대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전부 한 번 모아 볼 생각은 없으세요?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만들어서 체육산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할 것인가 하는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이런 체육산속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산업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전체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李協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상품 육성 예산을 증액할 용의와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지역공방은 어느 곳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문화관광상품 개발예산은 49억 원이 200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서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지역공방 예산은 10억 원으로 현재 전주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李協 위원님께서 예충, 민예충 지원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李協 委員 그 부분보다 향교 부분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에 관한 이 두 문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향교에 관한 지원은 현재 100만 원 정도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서 이것은 유교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교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유교 분야 지원을 위해서 유도연

수회관건립에 50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전국 향교지원을 위해서 2003년도에 시범문화거점센터 운영을 위해서 5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했지만 예산협의과정에서 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향교지원을 위해서 지방비 4억 원이 추가 확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향교 예산지원이 증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향교에 관한 것이 별도의 이런 예산뿐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문화역사마을만들기 이런 속에서 바로 이런 향교들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고 우리 마을 속에 문화와 역사가 살아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李協 委員 한 말씀만 더 보태고 싶은데요. 향교를 비롯한 유교, 유도에 관련되는 어르신들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역할과 사명이 있다고 아주 크게 자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예절교육 같은 것을 예산도 없는데 스스로들 방학 동안에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더군다나 요즘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도덕이 부활되어야 된다 이런 운동도 전개하고 계시는데 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각지에서 유도회관 같은 것도 좀 건립했으면 하는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이 문제도 정부가 검토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李允盛 위원님께서 오셔서 李允盛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강산관광 대가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방안은 없는지 하셨는데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지급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韓國觀光公社國內振興本部長 崔在根 李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일부 답변을 팩스로 보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한 관광대가 지급은 현대아산과 북측 아태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

는 사항으로서 우리 공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현금 이외의 출자방식에 관해서는 이미 현대 쪽에다가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한테 회신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李允盛 委員 2005년까지입니까?

○韓國觀光公社國內振興本部長 崔在根 그렇습니다.

○李允盛 委員 9억 얼마입니까?

○韓國觀光公社國內振興本部長 崔在根 9억 2000만 불이 되겠습니다.

○李允盛 委員 지금까지 간 것은요?

○韓國觀光公社國內振興本部長 崔在根 3억 8500만 불입니다.

○李允盛 委員 연체된 것은요?

○韓國觀光公社國內振興本部長 崔在根 5억 정도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현대 측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방법을 전환해서 1인당 100불씩을 관광대가로 지불할 그런 방안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월 1200만 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을 지금 바꿔 놓은 것입니다.

○李允盛 委員 알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계속해서 李允盛 위원님께서 우리 부 소관 5개 기금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기금관리 전문인력 부족, 서면 위주 심의, 각 기금의 낮은 평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장 지적대로 공공기금의 경우에 기금담당자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자산관리전문지식이 없어서 수익률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운용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기획예산처에서 관리하는 투자쪽에 적극 참여하고 외부전문가로 된 기금운용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전문성을 적극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기금심의가 서면 위주로 운영되어온 것은 기금운용계획 결산 등 통상적인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고 기금심의위원이 각 부처 관계국장이나 민간 관계전문가인 관계로 회의 소집이 여의치 않았던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면 심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도록 하고 실제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 기금의 낮은 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 기금운용평가 시 문예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기타 청소년 육성기금 등은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산운용전문가나 기금운용 전문성 부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그리고 국고와 기금 간의 중복 및 차별화 미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기금재정 조성 그리고 기금지원 기준과 평가지표 수립 등 주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는 각 기금의 지적사항에 대한 단기적 개선과 함께 각 기금의 특성에 맞는 기금사업의 적극 개발과 또한 중장기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기금운용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高興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高興吉 委員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예, 마지막으로 鄭範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鄭範九 委員 제 질의 중에서 남은 것은 기금과 예산의 구분 원칙이 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원칙을 보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관광숙박문화단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기획예산처와 우리 문화관광부가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숙박단지를 마련할 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마련된 후에 어떤 타당성을 봐야 민간이나 해외의 투자자도 그것을 볼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위해서 저희 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기반시설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고 기획예산처는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결정이 되는 것을 봐야 정부가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 100억을 반영

하려고 노력하다가 50억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鄭範九 委員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원래 행자부에서 중앙투융자심의에서 552억 국비 특히 기반조성비로 필요하다고 판정난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그렇습니다.

○鄭範九 委員 552억 내역이 일반회계에서 250억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302억인데 이런 경우가 기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일문화원 부지마련과 관련해서는 국고채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관광문화숙박단지 이것이 원래 사업연도를 2001년도부터 잡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투입이 되고 기반시설 조성이 되어야 민자도 들어오는 건데 그런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누가 실무진에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聖在 기금과 관련해서도 저희 부가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은 국가예산하고 비슷한 성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財廳長 盧太燮 문화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李允盛 위원님께서 지난 국감 시에 남한산성 훼손과 수리 복구공사 관련 지적 이후 조치사항과 재발방지 대안 그리고 2003년도 예산 반영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한산성 보수정비과정에서 문화재의 불법훼손 등이 발생한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공사는 영업정지 3개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조치를 기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행청인 경기문화재단에서 시공사에 대한 고발을 8월 30

일자로 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성벽의 일부를 임의로 해체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으로서 성곽전문가와 발굴전문가의 현지 입회하에서 시공사 부담으로 지난 9월 8일 원래 대로 복구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沈載權 위원님께서 풍납토성유적 보존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연차적 매입·정비를 위한 예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와 장기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풍납토성 보존정비를 위해서 10개년 동안 사유지 4만여 평이 됩니다. 학술조사를 통해서 가치를 규명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존정비를 추진하고자 기획예산처에 매년 정부예산 반영을 계속 요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는 풍납토성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거에 1988년도 담배소비세가 서울시에 이양이 되면서 풍납토성에 필요한 각종 예산은 담배소비세 이양조건으로 해서 서울시가 부담을 하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미래마을과 외환은행 부지 보상을 하면서 작년에 550억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처에서 예산을 주면서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문화재 문제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라는 서울시와 기획예산처와의 구두합의하에서 예산을 지원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에 계속 예산요구를 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관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쉽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토성 보존정비가 매우 긴급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해서 관련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엄청나게 큼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속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沈載權 위원님께서 덕수궁 복원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예산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청에서는 덕수궁 복원정비 6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발굴조사와 문헌조사, 복원설계를 추진하고자 20억 요구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창덕궁복원사업이 내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난 이후 2004년도부터 추진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덕수궁 복원도 2004년부터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설계가 되고 문헌조사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신다면 다시 또 문제사업으로 올려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載權 委員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처가 뭔가 불필요한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지금 덕수궁 복원사업은 미 대사관저에 있는 것을 제외한 지역을 우선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하라는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경내에 있는 약 1만 9000평 됩니다마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복원정비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沈載權 委員 저만이 아니고 저희 문화관광 모든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문화관광위원회 나름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이 집행될 수 있기 바랍니다.

○文化財廳長 盧太燮 감사합니다.

그리고 沈載權 위원님께서 선사유적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암사동 선사유적지 복원정비와 관련하여 이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견해와 향후 대책들을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청에서는 그동안 국비를 24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 19억 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총액 계상 예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액 계상 예산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 별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沈載權 위원님께서 명예보유자의 의료보호 지원근거를 조속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명예보유자에 대한 의료보호 지원근거에 대해서 입법적인 불비로 인해서 소홀히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관계법 보안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은 보유자들의 구입장비라든가 특별지원금형태로 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沈載權 委員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풍납토성 보존정비사업 관련한 예산 문제에서 서울시와의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갖는 입장 또 서울시가 갖는 입장 그런 입장들을 놓고 볼 때 지금 문화재청에서 계속 노력했지만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예, 그렇습니다.

○沈載權 委員 따라서 기획예산처 입장과 서울시 입장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財廳長 盧太燮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李協 위원님께서 문화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민간자원봉사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2003년도에 1억 2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자와 전수 조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 조교에 대한 전승활동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을 계속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비지정된 익산지역의 최만식·신필호 관련 유적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전문가를 보내 가지고 보호가치 여부를 판단해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호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高興吉 委員 아까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오늘 질의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금강산관광 전면 재검토입니다. 李元昌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이니까 그 부분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李協 委員 끝내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님들의 심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한 말씀 기록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금마관광지 조성사업과 운포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신청액을 원 액수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沈載權 委員 어쨌든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일이니까 덕수궁터 기초조사비 20억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육방송 지원 특히 VOD프로그램 관련해서 방송발전기금에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鄭鎭碩 위원님, 申榮均 위원님, 金秉浩 위원님, 鄭範九 위원님, 鄭柄國 위원님, 金成鎬 위원님, 玄敬大 위원님, 趙培淑 위원님, 李元昌 위원님, 尹鐵相 위원님, 李允盛 위원님, 金一濶 위원님, 權五乙 위원님, 李協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과 2003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및 기금심의를 위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문화관광부 소관 5개 기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및 문화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님

들께서는 정기국회 일정상 예산안 및 기금심사기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까지 심의를 완료하여 보고될 수 있도록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진지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위해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出席委員(16人)

高興吉	金秉浩	金成鎬	裴基善
申榮均	沈載權	尹鐵相	李元昌
李允盛	李協	鄭東采	鄭範九
鄭柄國	鄭鎭碩	趙培淑	玄敬大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千 浩 仙

○政府側參席者

문화관광부				
장관	金 聖	在		
차관	鄭 泰	煥		
기획관리실장	吳 志	哲		
총무실장	尹 淸	夏		
문화정책국장	李 淸	奎		
예술국장	金 長	實		
문화산업국장	劉 震	龍		
관광국장	權 慶	相		
체육국장	朴 鍾	文		
청소년국장	金 斗	顯		
공보관	金 泰	根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李 建	鏞		
국립중앙박물관장	池 健	吉		
국립국어연구원장	南 基	心		
국립중앙도서관장	申 鉉	澤		
국립중앙극장장	金 明	坤		
국립현대미술관장	吳 光	洙		
국립국악원장	尹 美	容		
국립민속박물관장	李 鐘	哲		
예술원사무국장	崔 振	用		
박물관건설추진기획단장	宋 東	根		

문 화 재 청 장	盧	太	燮
문 화 재 기 획 국 장	金	鍾	焱
문 화 유 산 국 장	宋	寅	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金	奉	建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金	秉	模

○其他參席者

한국관광공사			
사 장	趙	洪	奎
국 내 진 흥 본 부 장	崔	在	根
독 립 기 념 관 장	李	文	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 장	金	正	鈺
사 무 총 장	李	溱	培
예 술 의 전 당 사 장	金	順	珪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李	忠	植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徐	炳	文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사 장	李	鍾	仁
상 무 이 사	成	祥	宇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	金	聖	坤
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徐	廷	培